

1일 Market Index			
코스피	2542.46	코스닥	798.73
(+45.37)		(-0.51)	
금리 (미국 9년)	3.267	환율	1331.80
(+0.006)		(-2.80)	



m-커버스토리

中 수출통제, 홍해 무력충돌 등 공급망 리스크 복병

韓 수출 목표 7000억달러

자원 국유화·EU 환경정책 등 세계 공급망 위협 요인 산적 대기업 33%만 문제대응 가능 중소기업은 준비 조차 미흡



지난해 첨단분야 수출 호조에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고인 7000억달러로 제시했다.

가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인도네시아 원광 수출금지와 멕시코 등 주요 리튬 보유국의 자원 국유화 등 공급망 위협 요인은

줄을 서 있다.

주요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본격화하며 공급망 문제는 더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법, 에코디자인규정 환경정책은 추후 강력한 규제 우리 기업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해상 운송로인 수에즈운하로 향하는 홍해 무력충돌도 글로벌 물류 차질을 빚으며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지 명분으로 친이란 예멘 반군이 홍해 민간 상선 공격을 시작으로 미국 등 다국적군의 반격, 호르무즈 해협서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나포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패권 경쟁이 유럽 등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했고, 러시아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전쟁이 중동으로 전선을 확대한 모양새다.

문제는 중소 협력업체 위주로 기업들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 역량도 취약하다는 점이다. 또 향후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가 이달 발표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기인식과 대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633개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10곳 중 7곳은 공

급망 문제를 경험했고 이 중 85.8%는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급망 문제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33.5%에 불과했다.

공급망 위기 상황에 어느정도 준비돼있다고 답한 중소기업 비중은 22.5%로 대기업(56.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중소기업의 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결국 공급망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포스코나 고려아연 등은 니켈이든 리튬이든 각자도생으로 확보할 능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美 연준, 기준금리 4연속 '동결'

파월 "3월 인하도 어렵다"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 목표치 도달 확신 어려워



이 인하는 정책은 지금까지 유지된 물가 방향을 뒤엎을 수 있으므로 2%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하게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준이 물가지표로 활용하는 근원개인소비지출(PCE)지수는 12월 기준 2.9%로 집계됐다. PCE지수는 지난해 1월 4.7%에서 3월 4.6%, 6월 4.1%, 9월 3.7%로 꾸준히 떨어졌다. 목표치에 진입했음에도 아직 물가안정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3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켜봐야겠지만 FOMC 위원들이 3월 회의때까지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했다는 확신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히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근시일,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투자은행, 금리인하 5~6월부터 4차례 전망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5~6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하면서도 추가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만큼 금리인하 시작까지는 3개월 이상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수검표) 실습에서 서울시 서관위 관계자들이 비례국선 투표지 수작업 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의료개혁 골든타임... 지역 필수의료 살릴 것"

尹 대통령 여덟번째 민생토론회 인력확충 등 4대 정책 패키지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의료체계를 바로세우고,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의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국정과제로 임기 초부터 제시한 바 있다. 작년 10월에는 무너져가는 의료를 다시 살릴 담대한 의료개혁을 약속드렸고, 그 실천 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왔다"며 4대 정책 패키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의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개혁을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이뤄졌다.

<6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與 '신 주류'로 부상하는 친한계 인사들
▲정부, 설 연휴 안전관리 총력... 재난 상황실 24시간 근무 /사진 뉴시스

▲쌀 의무매입·농산물 가격보장 시행에 2조 들어... 부작용 우려
▲민주, 추미에 송파갑 전략공천 검토... "석동현 대항마" /사진 뉴시스



▲최영범 전 홍보수석,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行... 취업승인
▲권익위, 설 전후 공직자 금품·선물 수수 집중점검 착수 /사진 뉴시스

中 철강재 반덤핑 움직임에… 내수보호 vs 독점우려 ‘갈등’

포스코 “수입제품의 저가 공세로 철강업계 어려워… 방안 검토중”

비고로사 “반덤핑, 가격상승 불러 후공정 업체, 희생될수 밖에 없어”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을 둘러싸고 국내 철강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대형 철강사가 중국산 저가 철강재에 대해 반덤핑 제소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일본 등에서 수입한 저가 재료를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했던 압연·강관사들이 반발에 나섰다. 고로사와 비고로사간 엇갈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조강 업체들이 중국산 수입 열연강판에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수입제품의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열연강판이 생산되고 있는 모습.

/포스코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입산 제품에 대해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중국은 내수 시장 수요 부진으로 발생한 초과공급 생산 물량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일본 또한 한국 시장에 자

국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 중이다. 실제로 국내 유통되는 수입산 열연강판의 가격은 1월 29일 기준으로 톤당 82만원이다. 국내산 86만원에 비해 약 5% 저렴하다.

대형 철강사들은 수입 철강재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열연강판 판매량은 218만1000톤으로 지난해 2022년 3분기 203만6000톤에 비해 7.1% 증가했다. 판매량은 증가했지만 판매 단가가 하락하면서 전체 매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철강업계에서는 고로사를 보유한 대형사들이 올 하반기 제소를 위해 제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후공정 철강사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연은 고로를 보유한 제철소에서 생산되기에, 반덤핑 관세가 고로사의 시장 독점과 열연제품의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후공정 업체는 열연강판을 사용하지 않고는 자동차용 강판, 건축자재 등의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 가격이 상승해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원가가 올라도 제품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수요업체들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배

하다.

후공정 업체 관계자는 “수입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을 지배하는 대형 철강사들만을 위한 것”이라며 “기초 철강재를 구매하는 수많은 후공정 업체가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한국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후공정 업체 측은 해외 사례가 국내와는 다르다고 지적한다. 해외의 경우 경영이 어려운 상태인 한계기업들에 대한 보호장치로 작용하는 것과 달리, 국내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형 철강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후공정 업체 관계자는 “내수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려면 대형 철강사가 아닌 중견·중소 기업의 철강재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수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잠실~여의도 30분… ‘리버버스’ 물길 달린다

서울시, 10월부터 한강서 개시
마곡·옥수·잠실 등 7개 선착장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으로 운항
향후 기후동행카드 ‘무제한 탑승’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에서 영등포구 여의도까지 한강을 따라 단 30분 만에 주파하고, 교통체증 없이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올 10월부터 한강 물길을 따라 서울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리버버스(수상버스) 운항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한강리버버스는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독성 ▲잠실 총 7개 선착장을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평일 68회 상·하행 편도로 운항한다. 요금은 3000원이며, 한 번에 최대 199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추후 출시되는 6만 8000원(따릉이 포함시)짜리 기후동행카드로는 무제한 탑승 가능하다.

오세훈서울시장 이날 오전 시청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 서울의 수상 대중교통 시대가 개막한다. 리버버스가 도입되면,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경험하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강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리버버스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3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도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버버스는 마곡과 잠실 사이 7개 선착장을 상행(마곡→잠실)과 하행(잠실→마곡)으로 구분해 편도로 운항한다. 운항 시간은 평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 30분~밤 10시 30분에 평일보다 20회 적은 48회 운항한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9시와 오후 6~8시 30분에는 15분 간격으로, 그 외 시간대는 30분 간격으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운항한다.

마곡·여의도·잠실 선착장 3곳만 정차하는 ‘급행노선’도 출퇴근 시간대에 16회 운항한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일반노선을 이용하면 75분이 소요되는 반면, 급행노선은 54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시는 리버버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가·인천과 논의를 거쳐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과의 환승 할인도 적용한다는 목표다. 리버버스까지 무제한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도 출시된다. 따릉이를 타지 않으면 6만 5000원권을 구매하면 된다. 따릉이 포함시 3000원이 추가된다.

시는 이용 방식과 수요별 다양한 할인이 적용되는 맞춤형 요금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기 이용 승객을 위한 월간·연간 등 기간제 이용권, 서울을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1·3·7일권 등 리버버스만의 특화된 전용 요금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선착장까지의 접근성도 대폭 강화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가 다소 부족한 마곡·망원·잠원·잠실 4개 선착장은 버

스노선을 신설·조정해 버스정류장에서 선착장까지 5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리버버스는 탑승객 전원 좌석제로 운영되며 모든 좌석에 개인 테이블이 설치된다. 시는 “리버버스에서는 간단한 업무를 보거나 선내 카페테리아에서 구입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다”면서 “또 이동 중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과 경치를 만끽할 수 있도록 파노라마 통창도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는 SH공사와 이크루스가 참여한다. SH공사는 51%, 이크루스는 49%의 지분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해 각각 경영과 회계, 선박 운항을 담당할 예정이다.

시는 리버버스 활성화 추이 등을 반영해 2025년 이후 한강 주요 지점인 상암, 노들섬, 반포, 서울숲을 비롯해 김포아라한강강변, 당산 등으로 선착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선박 수도 2026년 10대, 2027년 12대, 2029년 14대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김현정 기자 hjk1@



쿠팡,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법원 판단, 유통산업 발전 기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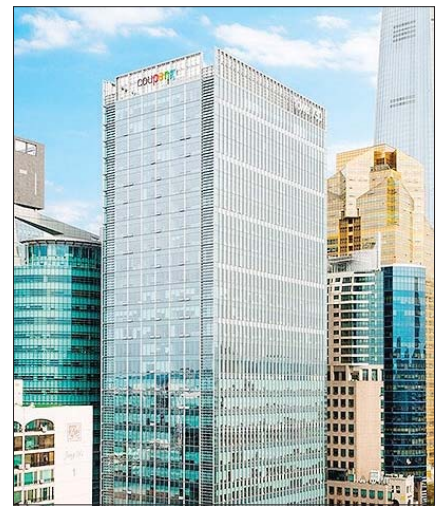
쿠팡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8월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LG생활건강 등 여러 납품업체 100여곳에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쿠팡 측은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



쿠팡 사옥 전경

/쿠팡

에서 “2017년 당시 소매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한 신생 유통업체가 업계 1위인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인정한 공정위의 결정을 법원이 바로 잡아준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법원의 판단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씨티 “6월부터 금리인하 시작 예상”

>> 1면 ‘美 연준 기준금리’서 계속

금리인하 횟수는 당초 연준이 시사한 3차례보다 많은 4차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Citi)는 “미국의 고용이 급격히 낮아지고, 은행불안 등이 심화되지 않는 한 3월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고, 첫 금리인하를 위해 근원 PCE가 데이터가 추가돼야 하는 만큼 6월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모건스탠리(MS)는 “연준이 정책결정문을 통해 ‘추가금축’ 문구를 삭제하고, ‘인플레이션이 2%에 달할 때까지 금리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더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6월 금리인하를 시작으로 올해 4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했다.

웰스파고(Wells Fargo)는 “3월 정책 회의까지 연준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5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뒤 올해 말까지 1%p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실리외교 중요성 커져… “韓, 미·중 갈등시대 잘 이용해야”

공급망 리스크

특정국가 의존 시 산업전반 영향
정부, 다변화·자립화 등 전략대응

정부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내놓은 전략은 다변화, 자립화, 자원 확보 등 3가지가 골자다. 산업부는 지난 연말 장관 주제로 포스코퓨처엠, 켄코 등 업계와 함께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어 이달 11일엔 공급망 연구개발과 핵심광물 비축지원을 각각 4배, 6배 확대하는 추가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수입 의존도와 산업영향 등을 고려해 흑연, 희토 영구자석 등 185개(잠정)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은 국내 소부장 수입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 의존도 50% 이상인 1719개 품목의 10% 수준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 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이 반영됐다. 최종 품목은 1분기 중 최종 확정된다.

이를 위해 범정부 공급망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해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자립화를 위해선 국내 생산시 경제성이 낮은 품목은 지원하는 반면,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해선 규제 등 애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연구개발 예산은 739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핵심광물 비축 예산도 2331억원으로 늘린다. 리튬은 기존 5.8일분에서 30일분으로, 영구자석용 희토류는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분으로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 대체 도입을 촉진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처 발굴과 수입보험 우대를 지원하는 한편,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한다. 해외 핵심광물

	업종	품목수	대표품목
첨단 전략 산업	반도체	17개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실리콘웨이퍼, 불화수소 등
	이차전지	19개	수산화리튬, 인조(천연)흑연,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분리막·파우치 등
	디스플레이, 바이오, 전기전자	23개	FMM, OLED 발광소재, 멤브레인, 바이오배지, DC모터 등
주력·신산업	자동차, 조선	24개	희토영구자석, 와이어링 하네스, 자율주행칩, 선박용 열교환기 등
	기계, 로봇, 항공	24개	산업용 로봇, 무인운반로봇, 수치제어기 등
기초 소재 산업	금속(철강, 비철금속)	29개	마그네슘과, 니켈과, 알루미늄, 티타늄, 팔라듐 등
	섬유	16개	탄소섬유, 공중합 아라미드 섬유, 분산성 염료 및 그 중간체 등
	세라믹	16개	산화코발트, 공업용 천연석영, 내화성 노즐, 흑연막대, 광섬유 등
	화학	17개	요소, 무수불산, 브롬, 이산화티타늄, 무수암모니아 등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용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늘리는 등 다변화를 지원한다.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석유·가스 비축 확대와 함께 용자·세제 지원 확대, 자원 개발 고도화 연구개발 예타 착수 등으로 자원개발 투자도 촉진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12월 공급망안정화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력하고 산업계 등 민관 공급망 협력체제도 구축해 국가 공급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 외교 등 대응전략 관련

다만, 공급망 리스크가 주로 중국의 수출통제 요인이 큰 만큼 중국에 포커스를 둔 전략적 접근과 함께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강천구 인하대 교수는 “전략은 잘 짰고, 상당히 좋다. 그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를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리스크는 중국에 너무 의지하다보니 생긴 문제고 우리 입장에서 중국 제품을 쓰지 않을 수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중국과의 신뢰

외교를 통해 외교적으로 윈윈해야지 너무 미국이나 유럽에 치우쳐 움직이면 실익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외교적인 노력 강조 “미·중 등 원원관계 구축 중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전략 펼쳐야”

강 교수는 “홍해 하마스 사건이 1월에 터졌는데, 공급망은 변수가 많고 그래서 공급망 대응의 첫번째는 외교”라며 “민간이든 정부든 해외에 나가서 자원을 확보하는 통상 교역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장관이 해외 기업을 찾아가서 구속력이 있는 본계약을 체결하는 실리외교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수출통제에 대응해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

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수출통제 주무 부서인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대 중국 수출통제 조치 도입을 설득할 것을 권고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량은 전 세계에서 독일에 이어 두번째로 의존도가 높다”며 “다원화 등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와 일부 중간재 등을 지렛대로 공급망 맞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이 더 많아진 점을 감안해 공급망 전략을 다시 짜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유화 미국 어바인대 교수(전 성균관대 교수)는 “한중 양국의 중간재 수출을 보면, 2021년까지 한국이 더 많았지만, 이후 중국의 중간재 수출이 더 많아지면서 공급망 역할이 바뀌었다”며 “한국이 중국 중간재를 수입해 글로벌에 파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대중국 적자 규모가 커진 이유가 이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미중 공급망 패권 경쟁 상황을 이용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교수는 “중국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국내 최종 생산이 막히자 베트남 등에 공장을 짓고 있다”며 “제3지대 공장을 찾는 중국 기업을 유치해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을 글로벌에 파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은 동남아보다는 한국을 더 선호한다”며 “미중 갈등 시대를 한국이 잘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갑진년 첫 수출성과 好好… 반도체 50% 이상 증가

1월 546.9억달러… 전년비 18% ↑
반도체 수출액 3개월 연속 증가

새해 첫 달 수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50% 이상 증가했고, 대 중국 수출도 오랜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다만, 수출 증가폭이 큰 건 1년 전 수출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긴축정책 등으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데 따른 기저효과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8.0% 증가한 546억9000만달러로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2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 수출물량은 14.7% 증가하며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1년 전 수출액은 전년동월(2022년 1월) 대비 16.6% 감소한 462억7000만달러로 직전 2년간 최저 수준이었다.

수출품목별로 15대 주력 수출품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56.2% 증가한 93억7000만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 다만, 1년 전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44.5% 급감한 60억달러였다.

자동차 수출은 24.8% 증가한 62억1000만달러로 2022년 7월 이후 19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1월 기준 최대 실적이다.

컴퓨터(+37.2%) 수출은 2022년 6월(+10.0%) 이후 18개월 동안 이어진 마이너스 고리를 끊었고, 철강(+2.0%), 석유제품(+11.8%), 자동차부품(+10.8%), 섬유(+8.5%)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됐다

9대 주요 시장 중 CIS(-5.2%)를 제외한 8개 시장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인 대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6.1% 증가한 106억9000만달러다. 대 중국 수출은 2022년 1월 133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월 31.4% 급감한 91억7000만달러까지 떨어졌었다.

이밖에 미국 102.2억달러, 아세안 87.6억달러, EU 57.0억달러, 일본

25.4억달러, 중남미 21.9억달러, 중동 16.7억달러, 인도 15.3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입은 7.8% 감소한 543억9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3.0억달러 흑자다.

조익노 무역정책관은 “반도체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 조선 등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 전망도 밝다”면서도 “2월은 설 연휴가 있고 중국 춘절 영향도 있어 2월 수출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수출 우상향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대중국 수출 회복이 기저효과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 정책관은 “작년 8월부터 대중국 수출이 100억달러 이상

>> 1면 ‘中 수출통제…’서 계속

지정학적 불안정 지속 中 小 等 지원방안 필요

이어 “제조업 70%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대기업들은 원자재를 중소기업에서 납품받는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원자재를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촘촘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또 전쟁과 미중 수출통제 등 당면한 이슈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반면, EU(유럽연합) 환경규제와 같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주요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노력도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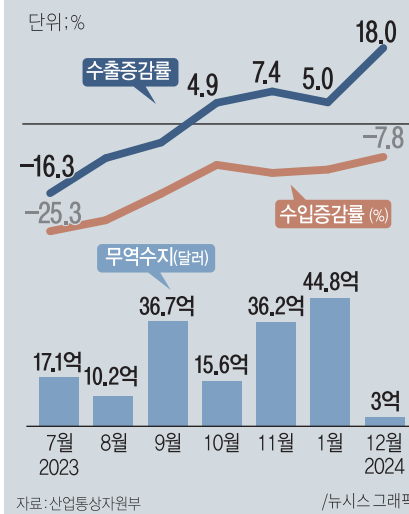
박가현 무협 공급망분석팀 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의 극단적 공급망 문제들은 상당부분 해소됐다”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각국 수출통제 등이 빈발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의 가시성을 확대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하고, 정부는 공급선 다변화, 재고확보 등 시급한 공급망 이슈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규제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올해 역대 최대 수출목표를 달성하겠다는데도 공급망 리스크가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0일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기반을 다지겠다”면서도 “올해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불안정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월별 수출입 증감률 추이



을 넘기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중국 수출의 40%인 IT 업황이 1분기는 약간 비수기고 이후 업황이 회복되고 수출이 확대돼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탄생… 수천억 자금조달 ‘관건’

28㎐ 할당… 중저가 라인업 확대
병원 등 기업·단체 내 우선 구축
무선 기지국 6000대 등 자금 투입
“재정능력 등 엄격한 심사 이뤄져야”

22년만에 제4이동통신사가 탄생하면서 통신 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사업자간 경쟁 촉진으로 과점 체제가 깨질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스테이지엑스의 재무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또 회사가 B2B(기업간 거래) 사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스테이지파이브 ‘리얼(Real) 5G 혁신 서비스’ 목표

지난달 31일 스테이지엑스가 국내 네 번째 이동통신사로 선정됐다. 스테이지파이브는 ▲가계통신비 절감 ▲통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가 컨소시엄을 통해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에 도전한다.
/스테이지파이브 홈페이지

신시장 경쟁활성화 ▲5G 28㎐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회사는 B2B와 B2C를 아우르는 ‘리얼(Real) 5G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스테이지엑스는 이번에 할당받은 28㎐ 주파수 대역을 포함한 중저가 단말의 자체 라인업 확대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폭스콘 내 모바일 디바이

스 제조 계열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또 28㎐ 대역이 가진 주파수 특성을 고려해 대학, 병원, 경기장, 공연장, 공항 등 유형별 선도 기업·단체 내 구축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신규통신사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20년 이상 지속된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사업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나선다. 최대 4000억원 정책금융 지원은 물론, 사업 성숙 이후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주파수 할당대가 방식도 변경해줬다.

◆수천억 조달 가능할까

관건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능력이다. 향후 운영 과정에 최대 수천억원이 필요한 만큼 일각에서는 회사가 이를 감내할 재무 능력이 있느냐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스테이지파이브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271억8365만원, 55억

4859만원으로 기록됐다. 스테이지엑스는 현재 재무적투자자(FI)로 신한투자증권 등을 포함해 8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테이지엑스의 주주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 2022년 알뜰폰 사업 등에서 발생한 순손실로 자본잠식이 발생했던 바 있다. 2022년 기준 결손금이 1812억원, 보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31억원으로 기록됐다.

이같은 상황에도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최저 가격인 742억원보다 4배 이상 높은 가격을 제시해 경매에서 낙찰됐다. 이는 지난 2018년 2000억원대 초반이었던 기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28㎐ 대역 주파수 낙찰가보다 2배 이상 많은 기록이다.

게다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스테이지엑스는 3년간 전국 90곳의 핫스팟에 무선 기지국 6000대를 구축하고 주파수 혼·간섭 회피 등 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통신업계에서는 기지국 구축 비용으로 수천억원의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신사업 수익성 ‘미지수’

제4이통사의 수익성 여부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실제 일본 라쿠텐 모바일은 2020년 4월 제4이통사에 진출했지만 5년간 누적된 적자로 모회사인 라쿠텐 그룹까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다. 라쿠텐 그룹은 13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 누적 적자는 총 8190억엔(7조 3675억원)에 달한다.

스테이지엑스 사업 구상이 B2B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5G 28㎐ 대역 주파수 생태계가 미흡한 만큼 후보 사업자들이 소비자 요금제와 직결되는 B2C(기업·소비자간거래) 사업보다 B2B·B2G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것.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혈세 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신청한 사업자들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등 재정 능력과 설비투자 의지까지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중간에 사업권 반납 상황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포스코, 차기회장 후보 6명 LG·SK 등 절반 ‘외부인사’

전·현직 포스코맨 3명, 외부 3명
유력주자 제외… 깜짝 외부인물
일각선 ‘호화출장’ 부담 주장도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사장) 등 포스코그룹 내·외부 인사 6명이 차기회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유력주자로 꼽혔던 인물들이 다수 탈락하고 예상치 못했던 깜짝 인물들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최근 불거진 ‘호화 출장’에 대한 부담에 따른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후추위는 지난달 31일 8차 회의를 열고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연구원장,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 장인하 전 포스코 사장, 전종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포함된 파이널 리스트 6명을 공개했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등 차기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주력 계열사 CEO들이 모두 이탈하면서 최종 후보에는 외부 인사가 오를 가능성도 커졌다.

외부 후보 중 일찌감치 하마평에 올랐던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외부 인사이면서도 과거 포스코에 몸담았던 OB(전직 임원)들이 포스코 회장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파이널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순수 포스코맨은 김지용 원장이 유일하다. 김 원장은 해외 법인 경험도 풍부하다. 과거 인도네시아대표법인설립추진

반장을 지낸 바 있다. PT.KP 법인장과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법인장을 맡았다. 광양제철소장, 안전환경본부장 등을 역임하다 현재 미래기술연구원장과 그룹 CTO(최고기술책임자)를 겸하고 있다. 김 원장은 내부 후보자 중 최정우 회장과 연결 고리가 가장 약한 측에 속한다.

외부 후보군 중 권영수 전 부회장과 김동섭 사장, 우유철 전 부회장은 LG맨, SK맨, 현대맨 등 4대그룹 출신이다. 권 전 부회장은 포스코그룹이 배터리 소재 등 신사업 분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상황에서 배터리 제조사 CEO와 배터리협회장까지 역임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LG그룹에서 ‘재무통·최연소 사장’으로 불려온만큼 지주회사 체제가 된 포스코그룹을 이끄는 데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김동섭 사장은 SK에너지와 SK이노베이션 기술원 원장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다 2021년부터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올랐다. 주로 정유·에너지 업계에서 커리어를 쌓은 인물이라 이번 파이널리스트 포함이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

우유철 전 부회장은 현대중공업, 현대우주항공,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현대제철 등을 두루 거친 ‘현대맨’이다.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제철에서 커리어를 쌓아 오다 일관제철소가 동과 함께 포스코와 견줄 만한 철강회사로 도약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제철을 이끈 인물이다.

나머지 외부 후보 2명은 전직 포스코 임원이다. 외부 인사라고는 분류되지만 오랜 기간 포스코에 재직하면서 회사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조직 내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

미래를
향해
본격
도약합니다

2024
경기
교육

학력향상 교육과정
에듀테크 하이러닝
지역협력 공유학교
학교자율 업무개선
교권보호 역량강화

자율
균형
미래



함께 크는 기술
함께 만드는 미래

SK하이닉스는 첨단 기술로
함께 성장하며 더 멀리 나아갑니다

협력사 인재채용 및 미래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프로그램 청년 Hy-Five/Hy-Po
반도체 전문 분석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분석/측정지원센터
환경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반도체 기업 연합 ECO Alliance

총선 ‘양지’ 물리는尹정부 사람들… 영남서만 예비후보 20명

경북 구미읍, 참모간 맞대결도
18개 지역구 부산도 인사 물려
서울·경기·충남 등서도 도전

국민의힘이 4·10 총선 후보 공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양지’에 대거 물리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출신 인사 20여명이 영남에 후보 등록을 했다. 영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현역 인지라, 현역의원과 집권 정부 출신 인사들의 싸움이 이뤄지는 것이다.

일단 경북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대통령실 인사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김찬영 전 행정관(구미갑), 이부형 전 행정관(포항북), 이병훈 전 행정관(포항남·울릉), 조지연 행정관(경산) 등이다.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상주·문경),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김천),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포항북)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구 현역은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대부분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다.

심지어 대통령실 참모끼리 맞붙는 지역도 있다.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이 선택한 경북 구미읍이다. 이곳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초선)의 지역구다.

18개 지역구로 나뉜 부산에도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물려들었다. 부산 중·영도에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곳은 국민의

힘을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 자리가 비어 있는 곳이다.

서울로 자리를 옮긴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였던 부산 해운대갑에는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사 출신인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부산 서·동에는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부수석실 행정관, 부산진읍에는 김유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사하

읍에는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연제에는 이창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이 도전한다.

영남권 외에도 서울, 경기, 충남 등의 지역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양지’인 곳에 도전하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도 있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예산에 도전하는데, 이곳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다.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은 서울 송파갑 출마를 선언했다. 또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서울 강남갑, 이원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서울 서초을에 거론된다.

일부 참모들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지역구에 출마를 검토 중이지만, 해당 지역은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 출마가 거론되는데, 이곳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표가 더 많이 나왔다. 현재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해당 지역구의 현역이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장관이 선택한 서울 영등포을도 현재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현역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5% 포인트 정도의 표차가 난 ‘스윙 스테이트’다.

박 전 장관이 “힘지 출마를 결심했다”며 영등포을을 선택하자,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한 국민의힘 인사는 “영등포가 힘지면 관악·금천·구로는 힘지를 넘어 지옥이냐”고 꼬집었다.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한 예비후보는 “‘윤심’을 앞세워 양지를 찾아다니는 모양새를 국민께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그런 모습은 오히려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것 아니겠나. 그리고 그게 정말 대통령의 뜻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대통령실·정부 관료 출신이라고 해서 공천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도부가 ‘김기현 체제’에서 ‘한동훈 체제’로 바뀌면서 공천 분위기도 전환됐다는 의미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압박… 野, 전 당원 투표 준비

〈가칭〉

與, 창당 발기인대회… 병립형 입장
野, 권역별 병립·준연동형 갈팡질팡

22대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제 방식이 총선을 두달을 남겨놓고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준비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민주당은 당의 선거제 방안을 모든 당원에게 묻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다당제의 출현과, 득표율과 의석수의 간극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받는 거대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수의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 선거를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해 지역구 의석을 보존하고 비례대표 의석도 확보하는 ‘꼼수’를 부렸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비례대표 19석과 17석을 차지한 후 본 정당과 합당했다.

여야가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실시되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대비해 또 다시 위성정당을 창당 준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상에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미 21대 총선까지 사용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고 당의 입장을 정해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사이에서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하자 위성정당을 창당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선거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하는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의 입장

을 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당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미 이 대표가 당 대표 출마 시 비례민주당의 강화와 위성정당 금지를 선언하지 않았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77.77%의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될 정도로 당심이 이 대표에 쏠려 있는 만큼, 당 지도부의 의중대로 비례대표제 방식이 결정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3지대와 당의 원로들은 일제히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원 투표가 제일 불길한 것”이라며 “히틀러도 국민만 보고 간다고 했다. 독재자가 항상 하는 소리다. 민주당이

못된 짓은 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1년 재·보궐 선거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할지 여부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확정할 적이 있다. 당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였기에 파장이 일었다.

박원석 개혁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4일, 명동 유세에서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며 비례대표 확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하고 피해입은 정당에게 사과했다”며 “하지만 약속의 시한은 1년 정도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수차례 공언과 약속이 속임수였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민주당 “철도·GTX·도시철도 지하화”

도심구간 상부개발, 랜드마크 건설
시민추진단 구성, 노선 선정 등 수립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전국의 철도·GTX(광역급행철도)·도시철도의 도심구간을 지하화한 뒤 상부를 개발해 지역 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4대 약속·4대 실천’ 자료에 따르면, 당은 관련 공약으로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철도 지하화 부지 상부 개발 ▲복선화 및 철도망 용량 확대 ▲경제성 외 균형발전, 행복추진권 보장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철도지하화 구간은 수도권·부산·대전·대구·호남 등 광역도시권이 포함됐다. 특히 수도권은 ▲경인선(구로~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의왕~수원~병점, 천안 도심구간, 평택 도심구간)을 지하화 추진 구간으로 선정했다.

수도권 도시철도 또한 ▲2호선(신도림~신림역, 한양대~잠실역, 영등포구청~합정역) ▲3호선(신답~성수역, 옥수~압구정역) ▲4호선(금정~

산본~수리산~대야미역, 상록수~중앙~고잔~초지역, 동작~이촌역) ▲7호선(쌍문~당고개역) ▲8호선(건대입구~청담역)이 지하화 추진 구간으로 포함됐다.

GTX-A~C 구간은 운정~동찬, 인천대입구~마석, 덕정 수원 구간이 지하화 대상 부지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지하화 부지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또,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노선 선정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도 철도 지하화에 관한 공약을 한 것 같다.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저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尹 “비급여·실손보험제도 등 개혁”

>> 1면 ‘의료개혁 골든타임’서 계속

의료인에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지역의료 재건 중요 과제로 꼽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의료사고 관련 제도 전면 개편,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비급여·실손보험제도 개혁, 지역의료 재건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지역의료, 필수의료로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둑게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진짜 하나뿐인 내 편 맞네!”

소상공인과 함께 올고 웃으며
늘 곁에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상도동 '시장떡방앗간' 윤세권 사장님

소상공인의 하나뿐인 내 편

소상공인분들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키오스크, AI CCTV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명: 고효율, 디지털 기기 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4년 1월 22일(월) ~ 2월 23일(금)

신청방법: 하나 파워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anapoweron.com>

신청하러 가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카드 해외승인금액 4조 ↑… 애플페이 덕에 현대카드 최다

지난해 국내 신용카드사 9곳
해외승인금액 13조769억
보복여행 흐름에 올 15조 기대

현대카드, 1년새 76% 급증
관광수요 증가·애플페이 효과

지난해 신용카드 해외승인금액이 4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해외승인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현대카드다. 업계에서는 올해도 해외여행 수요에 발맞춘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신용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개인 신용카드 해외승인금액은 13조769억원이다. 지난 2022년(9조1152억원) 대비 3조9616억원(43.46%) 늘었다.

해외여행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해외승인금액도 함께 증가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해외를 방문한 국내 관광객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신용카드 해외승인금액이 4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은 2271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2022년 655만4000명 대비 246.59% 오른 수치다. 카드업계 또한 해외여행 특화 마케팅을 단행하면서 보폭을 맞췄다.

해외승인금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현대카드다. 지난달 말 기준 현대카드의 누적 해외승인금액은 2조5276억원이다. 1년 사이 76.31% 급증했다. 현대카드의 호성적 배경에는 애플페이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일본으로 향한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애플

페이 효과를 제대로 누렸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지난 2009년을 시작으로 전국에 근거리 무선통신(NFC) 단말기를 보급했다. 'NFC강국'으로 통한다. 애플페이 도입 후 비접촉 결제 방식을 통한 해외 결제 편의성이 증가한 만큼 해외승인금액도 함께 오른 것.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국내 관광객은 312만8500명이다. 그간 인기 여행지로 손꼽힌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하나카드의 해외여행 마케팅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해외승인금액 1조1096억원을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7865억원) 대비 41.08% 늘었다. 여행 특화카드인 '트레블로그'를 주력으로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레블로그는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같은 기간 우리카드의 누적 해외승인금액은 9223억2700만원으로 전년 동기(7123억5100만원) 대비 29.47% 증가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올해 해외승인금액이 1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의 '보복여행'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다. '15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마케팅을 지속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명절 행사에도 해외여행 혜택을 강화해서 출시해야 한다"며 "해외여행객의 경우 소비여력이 높은 우량회원층이 다수 포진한 만큼 반드시 잡아야 하는 고객층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우리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1700억 이자 환급

우리은행은 설 연휴 전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21만명에게 약 1700억원 규모의 이자 금액을 환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공통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자환급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지난해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1인당 300만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되돌려 준다.

우리은행은 오는 2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오는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실시한다. 환급받는 이자 금액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기존 이용하던 대출이자 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다만 환급 대상자는 기존에 등록한 대출이자 출금계좌가 지급제한 등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 안내 ▲개인정보 ▲추가 대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환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은 2025년 5월 1일까지 이자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활한 이자환급 진행을 위한 전담팀 운영으로 고객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를 마쳤다"며 "환급받는 이자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NH농협은행 미성년자녀 계좌개설 추첨 통해 경품 제공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31일까지 NH올원뱅크에서 미성년 자녀의 입출식 계좌를 개설한 부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우리 아이 값진 통장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모가 NH올원뱅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입출식계좌를 개설하면 1000명을 추첨해 GS25 모바일상품권 2만원권을 제공하며 설날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50만원(1명), 30만원(3명), 5만원(16명)을 추가 제공한다.

또한 입출식계좌 개설과 별개로 미성년 고객이 NH올원뱅크를 신규가입하면 2000명을 추첨해 CU모바일상품권 1만원(1000명),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1만원(1000명)을 제공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자녀의 첫 계좌개설을 고려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미성년 고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에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급격한 시장변화, 빅데이터 활용 적극 대응”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신년간담회
보험 비즈니스 확장 솔루션 제시

“우리나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는 보험 산업을 만들어 보겠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원장은 “보험산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빅데이터의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빅데이터와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보험산업 가치창출 지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이 1일 '2024년 보험개발원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원 ▲AIoT(지능형사물인터넷)에 기반한 보험산업 신성장 사업 발굴 ▲미래형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개편 연구 ▲자동차 주행데이터를 활용한 보상업무 디지털화 지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간병보험 신위험률 개발 지원 등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으로 내놴다.

빅데이터와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가치창출 지원을 위해 데이터 연계분석을 통한 상품개발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달로 보험산업에서도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 보험개발원은 외부기관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한 통계분석에 나선다.

보험개발원은 “보험개발원의 보험데이터와 외부기관과의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해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것”이라며 “다양한 통계분석 결과 제공을 통해 상품개발 지원, 위험측정 정교화 등 보험사 가치창출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KB국민銀, 은행권 최대 3721억 민생금융지원 시행

5일 26만명 개인사업자들 대상
이자 캐시백 2617억 일차 지급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캐시백을 시작으로 총 372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3721억원 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 지원 3005억원과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오는 5일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약 26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2023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2617억원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이 일차적으로 지급된다. 공통 프로그램의 총 이자 환급액은 2월 5일 환급액과 올해 납부이자에 대한 예상 캐시백 388억원을 합산한 총 3005억원이다. 공

통 프로그램 역시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최대 규모다.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 임대업 제외)이며,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에 대한 캐시백도 매분기 종료 후 익월에 진행된다.

2023년 납부이자 캐시백과 관련해 대상 고객에게는 2일 카카오톡(알림톡) 또는 LMS를 통해 캐시백 계좌 등 상세 내용이 사전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으며, 캐시백 금액은 대상 고객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에 입금된다. 신청 절차 또는 개인 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과 함께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약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신속히 수립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K-종합상사, ‘자원 무기화’ 선대응… 니켈 등 광물 확보 총력

글로벌 ‘자원 무기화’ 양상
페루 등 공급망 다변화 모색
“지속가능한 확보 중요 과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원 무기화 양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의 무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종합상사는 이차전지 원료를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1일 에너지전환위원회(ETC)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차전지 주요 재료인 구리와 니켈의 수요 대비 공급이 약 10~15%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추진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원자재가 필수적인 만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STX가 생산 및 판매권을 확보한 아프리카 모잠비크 카울라 광산 모습

/STX

이에 따라 이차전지 원자재 확보 능력은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물은 이차전지의 가장 큰 비용 요인이기 때문이다.

또 자원무기화로 인해 원자재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자원무기화란 특정 지역에 편재돼 있는 천연자원에 대해 이를 소유한 국가가 정치적으로 영향

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희토류, 흑연, 리튬 등 배터리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은 수출을 통제하며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핵심 광물 생산에서의 우위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지정학적 우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상사는 이차전지 원료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STX는 페루 리튬광산의 지분과 리튬 정광의 운송·판매 오프테이크(생산물 우선확보권) 권한을 확보했다. 또한 리튬의 제련과 정련을 위해 국내외 배터리 제조업체와 공장 설립도 협의함으로써 리튬의 채굴과 제련, 정련, 운송, 판매에 걸친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할 전략이다. 아울러 배터리 제조·판매사 IBT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 이차전지 사업의 통합 밸류체인을 강화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를 방문해 ‘흑연 공급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연 9만톤의 흑연 공급망을 구축했다. 아울러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흑연 외에도 폐배터리, 리튬 등 이차전지 원료 소재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와 향후 10년간

동박원료 60만톤을 확보하며 글로벌 하이엔드 동박 시장 선점에 나섰다. 동박은 이차전지 음극재를 감싸는 두께 10μm(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의 얇은 구리박이다.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에 니켈 광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생산된 니켈은 미국과 한국에 양극재 공장을 둔 법인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양극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향후 리튬 투자에도 나서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예정이다.

상사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시장이 수요 둔화에 직면하긴 했으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이차전지 광물의 지속가능한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SKC&C, ‘디지털 탄소여권 플랫폼’ 만든다

롯데알미늄-조일알미늄 사업계약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구축 예정

SKC&C가 롯데알미늄(株)-조일알미늄과 제품 생산 전반의 종합 탄소 관리를 지원하는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알미늄과 조일알미늄은 알루미늄 박 생산과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터리 규제 대상이다. 전 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디지털로 수집하고 저장해야 하는 의무다.

SKC&C는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을 구축해 3단계에 걸친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철강·알루미늄 등 6대 품목의 제품 탄소 배출량에 관세를 부과하는 EU 탄소국경조



SK 서린사옥

정제도(CBAM)의 탄소 배출량 의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적용하고, EU의 추가 탄소 관리 규제 대응에도 적극 활용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 배출 전과정평가(LCA) 대응을 동시에 지원하는 탄소 배출량 관리 플랫폼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앞서 SK C&C는 글래스돔과 함께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을 개발한 바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실제 데이터 기반의 스코프3 전과정평가(LCA)를 자동화된 관리 체계로 지원한다. 국제 표준인 ISO14067도 수용하는 등 다양한 기능도 갖췄다.

롯데알미늄(株) 이승민 ESG전략부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탄소 관련 EU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각 공정별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배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탄소 배출량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

삼성전자, 사이니지 솔루션 ‘BSI’ 인증

개인정보 보호 관리 역량 입증

삼성전자가 만든 새로운 상업용 사이니지 솔루션이 개인 정보 보호 능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영국왕실표준협회(BSI)에서 삼성VXT로 국제정보보호 관리 체계 표준을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삼성 VXT는 차세대 디지털 사이니지 통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클라우드(Cloud Native) 기반의 운영·관리 소프트웨어다. 삼성 VXT를 활용하면 매장 내 제품 홍보, 할인 이벤트, 광고 영상, 환영 메시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쉽고 간편하게 제작·관리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처음 론칭했다.

삼성 VXT는 업계 최초로 ‘개인정보 경영 시스템 인증(ISO/IEC 27701:2019)’과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ISO/IEC 27001:2022)’을 동시에

받았다. 삼성 VXT 솔루션을 활용한 사이니지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관리 역량을 갖췄음을 인증 받은 것이다.

‘개인정보 경영시스템인증(ISO 27701)’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조직, 위험평가 등 114개 세부 통제 항목과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수탁자로서의 필수항목 49개로 구성된 글로벌 표준 체계의 관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평가해 인증한다.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ISO 27001)’은 정보보호정책, 통신·운영, 접근통제, 정보보호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관리 4개 관리영역, 93개 세부 항목에 대해 관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평가해 인증한다.

삼성 VXT 솔루션은 변경된 인증 범위에 맞춰 개인정보 처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추가했다.

/김재웅 기자

포스코 근무복 품질·기능 개선

포스코가 30년만에 근무복을 새롭게 바꿨다.

포스코는 현장 안전을 중시하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근무복에 시인성이 높은 오렌지 색상을 중심으로 반사띠를 적용하고 원단 품질과 기능을 한층 개선해 활동성과 작업효율성을 높였다고 1일 밝혔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난 1일 부터 변경된 근무복을 착용했다. 포스코가 이전 스카이라인 블루 색상인 근무복을 도입한 시기는 1993년으로 이번 교체는 30년 만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케미칼, 美 의료 패키징 시장 공략

현지 전시회 참여… 기업 협력 강화

SK케미칼이 의료 패키징 시장 공략에 나선다.

SK케미칼은 6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의료용품 전시회(MD&M)에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MD&M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의료기기 및 제조 산업을 위한 주요 전시회다. 업계 전문가와 관계자 등이 모여 의료기기 디자인·제조와 관련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공유한다.

SK케미칼은 전시회에서 기존에 마스크 월드, 의료용품 보관용기 등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패키징에 적용해왔던 코폴리에스터 뿐만 아니라, 순환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소재인 SKYPET

CR, 에코트리아 CR까지 함께 선보였다.

SK케미칼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미국 의료용 패키징 기업인 패커(Packer)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의료기기 업계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 수요를 공략하기로 했다. 패커와의 협업을 기점으로 의료 패키징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응수 SK케미칼 그린소재사업본부장은 “패커는 미국 의료 패키징 분야에서 유명한 업계 선도 업체로 이번 협업은 의료 패키징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의료 패키징 분야에 재활용 소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LG전자, ‘UV 살균’ 공기청정기 출시

LG전자가 공기청정기에 살균 기능을 더했다.

LG전자는 ‘UV살균 공기청정’을 더한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360° 공기청정기와 에어로타워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UV 살균 공기청정 기능은 자외선(UVC)로 흡입한 공기에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없애 실내 공기를 더욱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제품 하단 중앙부에 UVC LED 램프를 탑재해 토출하는 공기 자체를 살균함으로써 위생을 대폭 강화했다.

LG전자는 극초미세먼지와 생활냄새의 원인이 되는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5대 유해가스를 걸러 공기속 부유 세균과 부유 바이러스를 각각 99.9%, 99.8% 제거한다고 설명했다.



LG 퓨리케어 공기살균청정기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에어로타워 UV살균’도 360° 공기청정기 신제품과 동일하게 UV살균된 청정 공기를 밖으로 내보낸다. 고객은 추울 땀 온풍, 더울 땀 선풍으로 설정해 깨끗한 공기를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

/김재웅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살아나는 中 스마트폰 시장… 삼성에 기회?

퀄컴 작년 4분기 매출 4.9% ↑
中 스마트폰 소비 급증으로
중국 OEM서 매출 35% 거둬

삼성 갤럭시S24 점유율 회복 주목
현지 브랜드 독점 장벽이 관 건

글로벌 모바일 시장이 회복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이 스마트폰 소비를 늘리면서 다시 예년 수준을 되찾고 있다. 다만 중국 현지 브랜드가 성장률을 대부분 독점하는 상황, 국내 산업계 실적에는 오히려 악영향도 우려된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24로 얼마나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해 4분기 매출 99억2200만달러에 영업이익 36억2000만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기록,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4.9%나 증가하며 장기 침체에 빠졌던 스마트폰 시장이 반등을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에도 힘을 실었다. 실제로 퀄컴은 모바일용 반도체 매출액이 전년 동기 16%나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 회복이 주효했다. 전문가들은 퀄컴이 중국 OEM에서 매출을 전분기보다 35% 이상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전세계에서 20% 수준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요성이 높다.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12억대 수준, 이중 3억대 가까이 중국에서 판매된 수치다.



삼성전자가 인도에 갤럭시S24를 출시한 모습.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해 4분기부터 회복세를 본격화했다.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판매량이 약 680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7%나 증가했다.

퀄컴뿐이 아니다. 중국을 주요 거래처로 하는 국내 부품 업체들도 중국에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당장 삼성전기는 지난해 4분기 부진 속에서도 중국에 주로 공급하는 MLCC 판매 증가로 컴포넌트사업부 매출을 전년 동기보다 17% 늘리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애국 소비’를 중심으로 크고 있다는 것. IDC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애플(17.3%)이 차지했지만, 화웨이가 4분기에 출시한 ‘메이트60’으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며 점유율 13.9%로 4위로 뛰어올랐다.

퀄컴이 ‘깜짝’ 실적을 발표한 직후 오히려 추가 하락을 겪은 것도 이 때문이다. 종전에는 스마트폰 AP 시장에서

퀄컴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지만, 삼성전자 엑시노스2400에 더해 화웨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재등장하면서 퀄컴 점유율은 올라가기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화웨이는 지난해 미중무역분쟁 속에서도 7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든 신형 AP를 탑재한 메이트60을 출시한 바 있다. 올해에도 조만간 폴더블 신제품을 출시하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플래그십 메이트70을 추가하는 등 공격적인 시장 탈환 전략을 예고하고 있다.

애플도 긴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중국에서 이례적인 할인 행사를 펴고 있다. 중국 정부까지 사실상 ‘아이폰 금지령’을 내리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판매량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애플 전문 분석가인 대만 귀밍치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반도체 출하량을 전년 대비 15%나 줄이는 등

판매량 감소를 기정 사실화했다.

국내 산업계에도 악재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물론 LG이노텍 등 부품사들이 애플에 의존하는 만큼, 올해 실적 개선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폴더블 패널 주도권도 뺏겼다. 디스플레이서플라이체인컨설턴트(DSC)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해 4분기 폴더블 패널 점유율 36%로 전분기(76%) 대비 반도막, 중국 BOE에 1위를 넘겨줬다.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폴더블폰 라인업을 꾸준히 늘린 반면,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는 중국에서 여전히 저조한 판매를 기록한 탓이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갤럭시S24로 중국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가 올해 관련 업계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 초기에는 중국에서 20% 이상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현지 브랜드 선호 현상으로 몇년째 1%대 점유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삼성전자도 소비 심리 회복과 애플 선호 현상에 균열이 생긴 중국 시장 상황을 기회로 보고 여느때보다 적극적인 공략을 펼치는 모습이다. 중국에 판매하는 갤럭시S24에는 구글 대신 현지 최대 포털인 바이두의 ‘어니봇’을 탑재하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본 모델 램을 12GB로 제공한다. 8GB 램 모델도 성능면에서는 중국 스마트폰에 뒤처지지는 않지만, 현지 스마트폰이 기술적 한계로 고용량 램을 보편화하는 분위기인 만큼 생산 비용을 감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KT ‘시네마천국’ 채널에 韓영화 한글자막 도입

KT는 자체 영화 전문 채널인 ‘시네마천국’에서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한글 자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네마 천국은 KT그룹의 디지털 콘텐츠 전문 투자 배급사인 KT알파가 자체 영화 전문 채널이다.

KT는 한글 자막을 통해 시청자들이 대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한글 자막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 장애물 등을 제거하는 운동)의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콘텐츠 몰입 및 집중을 위한 요소로 각종 플랫폼에서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네이버 클로바X 업데이트 컬리 등과 스킬 연동

네이버가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X(CLOVA X) 업데이트를 통해 컬리, 원티드, 트리플과의 스킬(Skill) 연동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스킬은 각 서비스의 최신·전문 정보를 클로바X와 연동해 AI가 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다. 이번 업데이트로 클로바X는 네이버 자체 서비스인 네이버쇼핑과 네이버 여행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추가된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 스킬에 이어 한층 다양한 외부 서비스와 연계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나에게 맞는 최신 채용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을 때, 원티드 스킬을 활성화한 클로바X 대화창에 “5년차 UX 디자이너인데, 지금 지원할 만한 회사 찾아줘”처럼 질의를 입력하면 클로바X가 원티드 플랫폼의 정보를 기반으로 직무와 연차에 맞는 채용 공고 한눈에 정리해서 보여준다.

/구남영 기자

“인재육성 등 중소기업 社 역동성 회복 총력”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이 1일 서울 목동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4대 정책지원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중진공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신년 간담회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창업 요람’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을 40대 등 장년층까지 확대한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통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본격 출범하고 ‘투자조건부 용자’를 신설하는 등 민간후속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방식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유입 및 활용도 지원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1일 서울 목

동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원을 통한 역동성 회복 ▲지역 경제 활력 제고 ▲글로벌 신시장 진출 ▲맞춤 인재육성을 중심으로 한 ‘4대 정책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강 이사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입교생이 만 39세 이하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43세다. 30대에 회사에 들어가 10여년 가량 경험을 쌓고 창업하려는 수요가 많고 또 그래야 성공확률도 높다. 입교생 연령을 40대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또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글로벌청년창업사관학교’도 지원대상을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로 늘리고 사업화자금 지원도 5000만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강 이사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역 혁신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지역 내 수주 및 발주기업 간 거래관계를 강화하고 수주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네트워크를 새로 추진하고 매출 채권팩토링 운영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기보, 6개 시중은행과 3214억 규모 녹색금융 지원

K-택소노미 연계 지원 활성화
보증료 제공 등 통해 혁신성장 견인

기술보증기금이 6개 시중은행과 녹색금융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서울사무소에서 국민·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의 저탄소

경영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K-택소노미 연계 녹색금융 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시중은행이 한 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적용해 명확한 녹색기준 판별로 녹색금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저탄소 기업경영을 확산시켜 녹색성장

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은행들의 보증료지원금 45억원을 재원으로 총 3214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용 상향(85%→최대 95%) ▲보증료 감면(최대 0.4%p ↓, 5년간) 등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협약은

행들은 ▲보증료 지원(0.7%p, 2년간)을 제공함으로써 대상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자제감축기업 ▲외부감축기업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김승호 기자

교원 웰스 나무 디자인 공기청정기 웰스 에어가든 신제품

교원 웰스(Wells)가 ‘웰스에어가든 공기청정기’ (사진)를 출시했다.

1일 교원 웰스에 따르면 새 제품은 나무를 모티브로 한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을 담아 기존 모델과 차별성을 강화했다.

나무의 나이트에서 영감을 얻은 토출 그릴 디자인을 적용하고 나무의 따뜻한 느낌을 담은 ‘우드 베이지’, 싱그러운 잎사귀를 연상케 하는 ‘허브 그린’ 2가지 색상으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김승호 기자



스테판 커리가 출시한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

Gentleman's cut

'젠틀맨스 컷'
1월, 한국 첫 런칭

첫번째 배치
3,300병
한정판

NARA CELLAR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기업 눈치에… 금융당국 또 ‘보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목소리 커져

금융당국, 의무화 방안 보류 대신
자회사에 신주배정 금지하기로

정의정 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각한 상황
소각 의무화로 박스권 탈출해야”

시장의 기대가 집중됐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 도입이 보류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달 30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제외시키면서 사실상 도입이 보류된 것으로 해석됐다. 한국의 주주환원 수익률이 글로벌 표준 대비 낮다는 사실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제도적 추세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시각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사주 매입·소각은 가장 확실한 주주환원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며 “주주환원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연결돼야만 하고, 향후 자사주 매입 시 소각을 의무화시키

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해외의 경우,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소각으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기조가 미흡하다는 부연이다.

신한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의 배당수익률 격차는 미국 대비 해소한 상황이지만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활성화 기조는 여전히 저조하다고 평가됐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주식 시장이 글로벌 대비 가장 크게 괴리된 부분은 자사주 매입 비율”이라며 “코스피 자사주 매입 비율은 미국 대비 평균 2.7%포인트 낮다”고 꼬집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보류하는 대신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설하는 자회사 신주 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인적분할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사주를 매개체로 이용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소위 ‘자사주 마법’ 현상을 없애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인적·물적분할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당연한 조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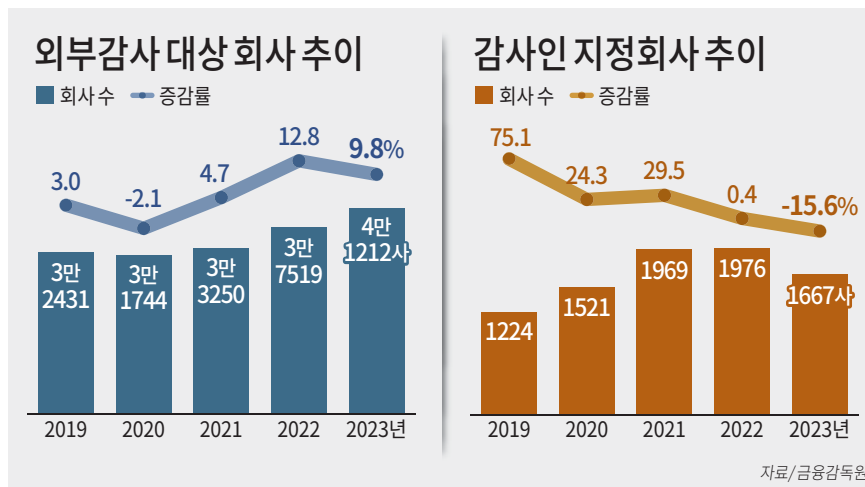
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016년 이후 이뤄진 인적분할 대상장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는 45건 중 11건(24%)에 불과하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도입할 것처럼 움직임을 보이다가 기업들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꼬리를 내린 것 같은데, 다시 원위치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초강수를 통해 증시 박스권 탈출을 도모하는 등 효과적인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는 4.32% 하락하면서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증시 성적이 부진한 만큼 확실한 주주환원 기조를 포함한 제도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 대표는 당장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더라도 단계적 소각을 유도하는 등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얹혀 있는 만큼 기업들의 의견과 투자자 보호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서 나온 방안”이라며 “약 10년 동안 공회전됐던 부분이 이제 막 도입된 만큼 점진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작년 감사인 지정 기업 1667곳, 15.6% ↓

금감원 “신외감법 시행 후 첫 감소”
외부감사대상 회사 4.1만곳, 9.8% ↑

지난해 감사인 지정 기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667개사로 전년 대비 15.6% 줄었다.

금감원은 “주기적지정제도 도입 등으로 급증했던 지정회사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지정사유를 합리화하면서 신(新)외감법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2022년 말 3만7519사에서 2023년 말 4만1212사로 9.8% 늘었다. 외부감사대상 기준 개선 등으로 20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비상장회사가 3만7947사로 대부분

을 차지했으며, 주권상장법인과 유한회사가 각각 2642사, 623사다. 자산규모는 200억원~500억원이 33.8%, 100억원~200억원이 30.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가운데 67.1%는 전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17.7%는 변경했다. 나머지는 초도감사로 신규 선임했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의 비중은 4.0%로 전년 대비 1.3%포인트(p) 축소됐다.

주권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이 37.6%로 여전히 높지만 지정사유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면서 절반을 웃돌았던 지정비율도 빠르게 하락했다.

주기적 지정회사는 571사로 전년 대비 15.7% 줄었다. 직권 지정회사는 1096사로 전년 대비 15.6% 감소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210개 고객사 확보… 10년 넘게 흑자기조

IPO 간담회

코셈

전자현미경 독자개발로 국산화
이차전지·반도체 등 진출 추진
지난해 매출 137억, 영업이익 19억

코셈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 후 성장 전략을 밝혔다.

2007년에 설립된 코셈은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코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전자현미경을 2008년 국산화 시켜 한국을 세계 다섯 번째 전자현미경 독자개발 및 생산국이 반열에 올랐다.

이후 코셈은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해 2011년 탁상형(Tabletop) 주사전자현미경을 출시했으며, 3만~5만배 배율을 지원하는 기존의 탁상형 주사전자현미경과 달리 세계 최초로 10만배 배율을 지원하는 탁상형 주사전자현미경 개발에 성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외에도 코셈은 세계 최초로 ‘탁상형 주사전자현미경용 ED S 통합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을 통해 신기술(NET) 인증을 세 차례나 받았고, 현재 국내 34건, 해외 3건의 특허를 등록 및 출원했다.

코셈은 일반 주사전자현미경과 탁상형 주사전자현미경, 이온밀러(CP) 등 고(高)효율과 고(高)성능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군으로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고



이준희 코셈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 후 성장 전략을 밝혔다. /코셈

분자 복합소재와 같은 각종 산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코셈은 연구용 전자현미경 분야부터 산업용 융복합장비까지 사업을 확장해 약 210여개 고객사를 확보했고, 기술 개발에 있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매년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2022년에는 매출액 125억원, 영업이익 18억원을 달성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가결산 결과 매출액은 137억원, 영업이익은 1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셈의 공모 주식수는 총 60만주로, 1주당 공모 희망가액은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이다. 총 공모금액은 72억원에서 84억원이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된 뒤, 13일과 14일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 진행 후 2월 23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신하은 기자

“LG생전, 아직 바닥 아냐”… 투자의견 ‘중립’

작년 4분기 실적부진에 전망 부정적
DB금융, 목표가 36만원→32만원

LG생활건강이 회복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도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증권사들은 아직 바닥을 확인할 수 없다며 LG생활건강에 대한 ‘매수’ 투자의견을 거두고 목표주가도 잇달아 낮췄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1조5672억원의 매출과 4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58% 줄었으며,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지난 한 해 매출액은 6조8048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870억원으로 31.5% 줄었다.

DB금융투자증권은 이날 LG생활건강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



LG광화문 빌딩.

립’으로 낮추고 목표주가도 기존 36만원에서 32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부진의 원인은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사업 매출이 모두 감소한 영향으로 봤다. 특히 중국 시장 수요 약세로 화장품 수익성이 크게 하락했다.

허제나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중국 화장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매출이 30% 가까이 감소하고 마케팅비가 확대되면서 큰 폭의 영업적자가 불가피했다”며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며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둔화도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LG생활건강에 대해 “아직 바닥이라고 하기 이르다”라며 투자의견을 ‘중립’을 유지했다.

김명주 연구원은 “3분기 대비 4분기의 중국법인 적자가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올 1·2분기에도 영업적자는 이어질 것”이라며 “4분기 면세 매출의 급격한 감소 등을 고려 시 화장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수요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LG생활건강 투자의견을 ‘보유(Hold)’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기존 44만원에서 38만원으로 낮췄다.

/이세경 기자 seilee@

KB자산운용, 엔화노출 ETF 순매수 300억

투자자 인기… 출시 한달만의 성과

KB자산운용의 ‘KBSTAR 미국채 30년 엔화노출(합성H) ETF’ 상품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출시 한 달 만에 개인 순매수금액

300억원을 돌파했다.

KB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기준 ‘KBSTAR 미국채30년 엔화노출(합성H) ETF’의 개인 순매수 규모가 31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출시된 이 상품은

미국채 30년물 투자에 따른 자본차익과 엔화 가치 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내 최초 상장지수펀드(ETF)다.

최근 3개월간 국내 투자자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해외 ETF 중목인 일본 ‘iShares 20+ Year US Treasury Bond JPY Hedged ETF’의 한국판으로 잘 알려졌다. /신하은 기자

분양가 상승, 1~3인 가구 늘어… 수도권 소형아파트 ‘인기’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 동향

수도권 평균분양가 평당 2434만원
전년 동월비 15%, 314만원 올라

작년 60㎡ 이하 거래량 51% 증가
공급량은 2년만에 절반수준 줄어

최근 수도권 아파트분양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 평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평형 공급량 감소와 1~3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 평형 인기는 커질 전망이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3.3㎡당 2434만41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분양가(2120만2500원) 대비 14.82%(314만1600원)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평당 분양가는 3.3㎡당 2977만9200원에서 3494만7000원으로 17.35%(516만7800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스1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 흐름에 수도권 일부 단지의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격은 10억원에 준하거나 웃돌았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광명에서 분양한 3개 단지(광명자이더샵포레나·광명센트럴아이파크·트리우스광명)의 전용면

적 84㎡는 10억~12억원 선에 공급됐다. 지난해 11월 의왕시에서 분양한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9억 초반대로 책정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선 중대형 아파트 대비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 평면에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면적별 전체 청약경쟁률은 60㎡ 이

하 면적이 16.74대 1로, 60~85㎡ 이하(9.69대 1)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형 평수 아파트 매매 거래량 또한 눈에 띄게 달라졌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1월~12월) 수도권 아파트 전용면적 60㎡ 이하 매매 거래량은 6만7222건으로 전년 동기 거래량(4만4429건)보다 51.3%(2만2793건) 증가했다.

소형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든 것도

수요자들을 몰리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수도권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공급량은 ▲2021년 3만4349가구 ▲2022년 2만5777가구 ▲2023년 1만7506가구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매년 1~3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59㎡ 이하 평형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 세대별 가구는 1~3인만 으뜸세를 보였다. 1인가구는 1월 465만9391가구에서 12월 474만3994가구로 1.82%(8만4603가구) 증가했다.

같은 기간 2인가구는 268만1071가구에서 273만9644가구로 2.18%(5만8573가구) 늘었다. 3인가구의 경우 1.01%(209만724가구→211만1878가구) 증가했다.

업계 전문가는 “소규모 가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전용면적 59㎡ 이하 면적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면서 “시공사의 설계 기술의 향상 평준화로 소형평수에서도 널찍한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이용자 증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국토부, 3일 자정부터 52시간 진행
할인 위한 출발·도착정보 기록 못해
이동거리 관계없이 최대 마일리지 줄 듯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알뜰교통카드’ 개선 작업이 오는 3일 새벽 0시부터 5일 오전 4시까지 52시간 동안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일 ‘알뜰교통카드’의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작업시 알뜰교통카드 앱·홈페이지 접속이 안되므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출발·도착 정보를 기록할 수 없다.

대광위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에게 이동 거리와 관계 없이 최대 마일리지(800m 기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캡처.

토할 예정이다.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받는다. 약 10%의 카드사 추가 할인 혜택도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급증한 알뜰교통카드 관련 정보를 원활히 수집·처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지

난 2019년 도입 당시 2만1000명이던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22년 말 48만7000명, 지난해 말 109만명으로 급증했다. 현재는 약 112만명으로, 오는 5월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K-패스의 전환을 앞두고 증가세가 가파르다.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은 정보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에 장애가 빚어지면서 지난해 초 ‘먹통’이 됐다가 이틀 만에 복구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을 통해 앱 접속 속도를 비롯한 편의성을 높이고 K-패스 출시 이후 이용자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개선 작업을 마친 뒤에도 시스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을 지속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 본격 시행

중기부, 총 400억 규모 자금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 사업을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매칭융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총 400억원 규모의 투자매칭형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투자대상은 이미 선정된 총 11개의 투자운영사로부터 3년 이내 투자를 받은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며, 신규로 투자 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투자운영사에 투자 희망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투자운영사가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공)에 제출한 후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투자받은 금액의 최소 2.5배에서 최대 5배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매칭융자 외에도 상인 공동자산을 위한 융자프로그램인 ‘상권연계형 매칭융

자’도 신규 도입한다.

‘상권연계형 매칭융자’는 특정 상권 내의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투자받아 상권에 공동으로 필요한 지원시설을 구축할 때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20억원까지 묶음형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투자운영사와 분기 1회 이상의 투자 IR 대회도 개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신규 투자 유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소상공인이 만들어 내는 스톱 브랜드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고, 이들을 민간 투자자와 연결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업과 창조적 신제조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매칭융자와 같은 다양한 혁신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만들고, 이들이 지역 소상공인,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로컬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일부터 소진공 공식 누리집이나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HD현대마린솔루션, 오션와이즈 공급계약

선박 탄소배출량 모니터링·예측

HD현대의 해양산업 분야 종합 솔루션 기업 HD현대마린솔루션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 탈탄소 솔루션인 ‘오션와이즈’의 본격 상업화에 나선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1일 포스코와 AI 기반 탄소배출 모니터링 솔루션 오션와이즈의 첫 상업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션와이즈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 가상공간에 선박 성능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운항 경로 및 기상, 조류 변화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한다. 또 선박의 실제 운항 데이터가 쌓일수록 빅데이터 분석 기법과 딥러닝·머신러닝 등 AI 기술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HD현대마린솔루션은 포스코에서 철광석 및 석탄 등 원료 도입을 위해 운용 중인 건화물선에 대해 CII(탄소집약도지수) 등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CII 등급 모니터링 기능’, ‘운항 전 CII 등급 시뮬레이션 기능’, ‘최적 항로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관계자는 “글로벌 탑티어 철강사인 포스코와의 계약을 통해 탄소 배출량 관리와 저감을 위한 오션와이즈 서비스의 신뢰성을 입증했다”며 “특히 HD현대마린솔루션의 고객층이 기존 선사 중심에서 대형 화주까지 확장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AMD ‘라이젠8000G 시리즈’ AI기능 더해 공식출시

AMD도 AI 프로세서를 내놔. AMD는 새로운 올인원 데스크탑 프로세서, 라이젠8000G 시리즈를 공식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시리즈는 최상위 라인업에 라이젠 AI와 라데온 700M 등 등급 최강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높은 전성비를 제공하고 AI 워크로드 최적화를 통한 AI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라이젠 8000G는 AM5 플랫폼을 기반으로 1080p 해상도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과 메모리 오버클럭 기능 AMD 엑스프로, CPU 원터치 오버클럭 기능인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PBO) 등을 제공한다. 외장 그래픽 카드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김재웅 기자 juk@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공급 기업 모집

200여개 기업, 750개 기술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할 기술공급 기업을 모집한다.

1일 소진공에 따르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200여 개 기술기업과 750여 개의 스마트기술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AI, IoT, VR·AR, 로봇, 키오스크 등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보급

가능한 상용화된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스마트기술은 풀(Pool)로 구성해 올 한 해 동안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게재, 소상공인이 필요한 스마트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면 오는 2월8일까지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소진공은 서류검토, 서면평가, 대면(현장)평가 등을 통해 기술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2000억 ‘농식품 펀드’ 조성… 기술개발 등 농업 생산성 제고

농식품부

모태기금 출자전략 협의회 개최
韓 농가와 상생기업에 집중 투자
공적 영역서 투자 인프라 강화도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오후 ‘제1차 농식품 모태기금(모태펀드) 출자전략 협의회’를 개최하고, 투자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 올해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와 기업·지자체 등의 민간자금을 합쳐 올해 총 2000억 원대 규모의 농식품 투자 펀드를 결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 모태펀드란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재정과 기금의 출자를 받아 농식품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펀드를 뜻한다.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이 결합한 농식품 펀드를 민간인 투자운용사(창업투자회사)가 사업성 검토를 통해 우수한 농식품 사업체(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사업자 등)를 선별해 투자하게 된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투자조합이 함께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위험분담도 투자조합이 나눠 갖는다. 채권자-채무자의 관계가 아니라 주주 관계가 성립된다. 또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은 함께 나눈다.

이날 협의회에는 관재한 농식품부 농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업혁신정책실장을 비롯해 7개 주요 자(子)펀드 운용사 대표(전체 1조6000억 원 펀드 운용), 벤처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모태펀드 운용실적을 공유했다. 이어 올해 모태펀드 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자펀드는 누적기 준 1조8000억 원 결성했으며 1조1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다. 또 청산수익률(IRR) 8.5% 등을 기록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모태펀드 운용 과정에서 정부와 투자업계 간 정기적인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모태펀드 출자 방향 등을 투자업계 등 민간과 조율하는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출범하고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둘째, 모태펀드를 통해 올해 2000억 원 이상의 농식품 투자 펀드를 결성해, 기술 개발 등 농업 생산

성 제고에 기여하거나 국내 농가와 상생하는 우수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자본이 농식품 산업에 원활하게 유입되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그 전제조건인 산업·기업 투자정보 분석 기능(애널리스트)을 보완하는 등 공적 영역에서 투자 기반(인프라)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산업동향·우수기업 투자보고서를 발행하고,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 등을 운영하게 된다.

관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출자전략협의회를 통해 투자업계 등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운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농식품 산업과 투자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생태계 파괴 위험 ‘유입주의 생물’ 150종

환경부, 외래생물 유입 사전관리 강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V’를 발간해 2일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외래생물 유입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으나 향후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 국립생태원이 전문가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한다.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5일 150종을 신규 지정해 총 706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선정 대상 종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2) 사회적·생태적 피해 사례가 있는 종 3)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 4) 서식조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

은 종 5) 질병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종 등이다. 국내 최초 수입·반입시 승인 필요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규제 여부를 판정한다. 불법 수입·반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발간된 ‘유입주의 생물 160종 IV’ 자료집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간됐다. 유입주의 생물 150종에 대한 형태, 생태적 특성, 분포지, 국내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료집은 관계기관(관세청, 지자체 등)의 외래생물 업무참고자료, 외래생물 대국민 교육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V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전자파일(PDF) 형태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 227조 ‘역대 최대’

통계청, 12월·연간 온라인쇼핑 동향
모바일 쇼핑 167조, 전년비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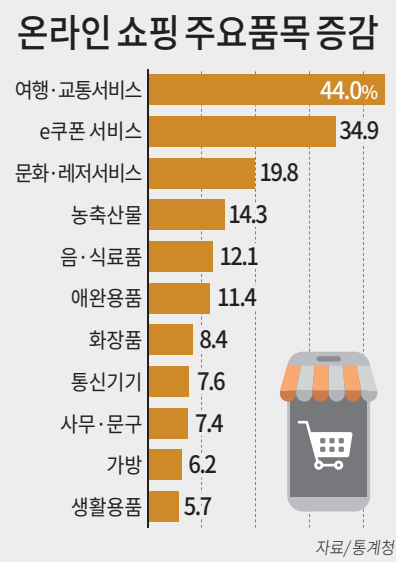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연간 기준으로 227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역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인 20조 원대에 달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지난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인 데다 해외 직구가 늘어난 영향도 컸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7조347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3% 늘었다. 이는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액수이다.

이 중 모바일을 통한 쇼핑 거래액은 167조8276억 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했다. 전체 모바일 쇼핑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73% 넘게 차지했다. 상품군별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전년보다 44.0% 늘어난 24조912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증가폭도 상품군 중 가장 컸다. 음·식료품은 12.1% 늘어난 29조8690억 원이었고, e-쿠폰서비스는 34.9% 증가한 9조882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화 및 레저서비스는 2조8834억 원으로 19.8% 증가했다.

반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4.6% 감소한 8조7001억 원이었다. 코로나19 때 재택근무 등으로 수요가 급증한 이후 기저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거래액 구성 비중으로는 음·식료품(13.1%)이 가장 컸고, 음식서비스(11.6%), 여행 및 교통서비스(10.6%)가 그 뒤를 이었다.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직접 상품



을 구매하는 흐름도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전년보다 26.9% 늘어난 6조7567억원으로 집계됐다. 나라별로, 미국(-7.3%) 등에서 감소했지만 중국(121.2%), 일본(11.0%) 등에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국은 전년 대비 100% 넘는 증가율을 보였는데,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온라인쇼핑 앱이 강세를 보이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작년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3574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7.7%(1조4598억 원)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상품군별로 보면 여행 및 교통서비스(21.8%), 이쿠폰서비스(35.7%), 음·식료품(9.9%) 등의 증가폭이 컸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2.4%), 음식서비스(11.9%), 여행 및 교통서비스(1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EU 공급망 실사… 韓기업 부담 최소화 당부

기재부, 한-EU 거시경제대화 개최
재정건전성 조화 등 공통 이슈 대응

기획재정부는 1일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공급망 실사지침·탄소국경조정제도 정책과 관련해 한국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EU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EU 집행위원회)에서 제11차 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를 열었다. 이 회의는 지난 2010년 5월 맺은 한-EU 기본협정에 따라 매년 개최돼 왔다.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비롯해 EU 공급망 실사지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

화하는 방안을 당부했다. 한-EU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관련해, 양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충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정책 대응의 결과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우리 측은 올해도 지정학적 위험, 세계 경제 분절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반도체 업황 회복 및 주요 경제권 투자 확대 등 해외수요 개선 등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U 측도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동의했다. EU는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았고 높은 물가상승세에 따라 소비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고용상황이 호

전되고 소비가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망, 경제안보 등 경제회복력에 대해서는 팬데믹과 중동, 러·우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 등이 야기한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양측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우리 측은 공급망 기본법 등 공급망 관련 법안 및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했다. EU 측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양측 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정 준칙 등 한-EU 재정정책 관련해서는 팬데믹, 에너지 위기, 고령화, 기후대응 등에 따른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설 제수용품, 우수 전통시장서 구매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우수’ 전통시장 10곳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일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국내 각지 전통시장 10개소를 공개했다. 농관원은 이번 설 명절 소

비자들의 선물·제수용품 구매를 돕기 위해 이들 시장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자율표시 우수 대표시장은 ▲(서울)가치산시장 ▲(경기)군포 산본시장 ▲(강원)정선아리랑시장 ▲(충북)청주가경터미널시장 ▲(충남)천안중앙시장 ▲(전북)군산공설시장 ▲(전

남)광양중마시장 ▲(대구)관문상가시장 ▲(부산)동래시장 ▲(제주)동문재래시장 등 10곳이다.

농관원은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2013년부터 10년간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 평가를 통해 ‘원산지 자율표시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시상해 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ARCHIVER **Gamepia**

런칭 기념 SSR 풀세트 전원 증정

배트소녀

키우기

ZOMBIE RUSH



배트소녀 키우기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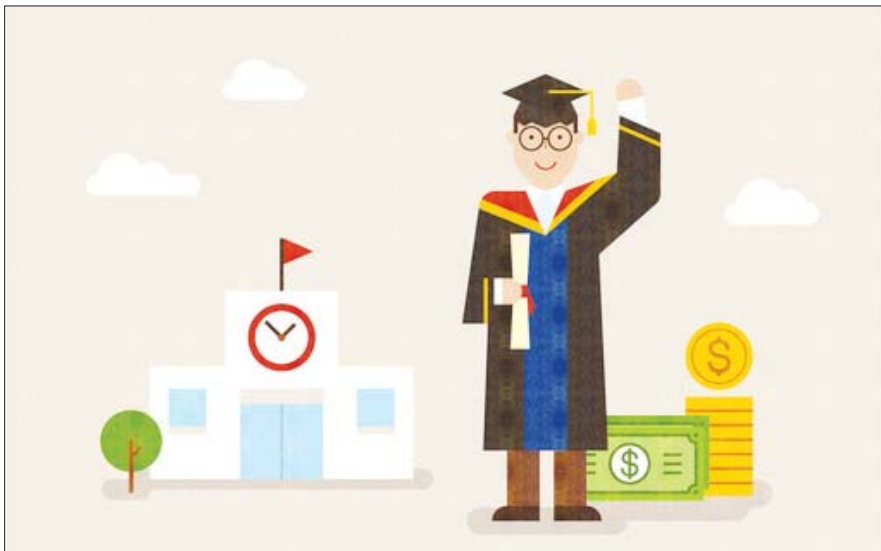


계명 등 지방대 일부, 등록금 5% 안팎 인상… 동결기조 ‘흔들’

광주 조선대, 15년만에 인상 추진
부산 경성대, 1학기 평균 5.64% ↑
“서울권 등에 인상 기조 확대할 듯”

일부 지방 사립대가 2024학년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십수 년 이어진 ‘동결’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등록금 법정 한도가 높아져 등록금 인상 시 받을 수 없는 정부 지원금을 포기해도 인상 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15년여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대학재정난이 심화하면서 내년에는 수도권 및 서울권 대학까지 등록금 인상 분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광주 조선대가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4.9% 인상하기로 했다. 조선대가 등록금을 인상한 건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조선대가 등록금을 인상하며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I I 유형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대학 측은 등록금 인상분 중 국가장학금 I I 유형 규모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인상분



서울대·경북대·충남대·부산대 등 국립대학들이 2024학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한데 반해, 일부 지방 사립대에서는 2024학년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하는 곳이 속속 나오고 있다. /유토이미지

63.5%는 국가장학금 대체금으로 쓰이게 된다. 나머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경성대도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오는 1학기 등록금을 평균 5.64% 인상하기로 의견을 보았다. 이 밖에도 대구 계명대 4.9%, 원주 경동대 3.75%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

들 대학도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정부 국가장학금을 대신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지방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사립대는 지난 2009년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 이후 등록금 동결을 시작하며

2016년부터는 일부에서 적자 상황까지 직면했다.

그럼에도 그간 대학은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I I 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년 정하는 ‘등록금 인상을 상한선’이 올해 크게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의 인상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법정 인상 한도가 지난해 (4.05%)보다 1.59%p 오른 5.64%로 정해졌다. 이는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가 시작된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에 따라 등록금 인상 가능 상한선이 크게 높아지면 등록금을 올려 얻을 수 있는 수입 규모가 커졌다.

오는 새 학기 등록금을 확정하는 등심위를 아직 마치지 않은 대학에서 추가로 ‘인상’을 결정하는 대학이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내

년에는 이 기세가 서울 및 수도권 대학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 한 관계자는 “올해 일부 지방대가 인상을 이어가며 인상 기조가 형성되고 있고, 내년 총선까지 지나고 나면 사실상 인상 목소리는 대학가 안팎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2025학년도에는 수도권이나 서울권에서 등록금 인상 대학이 적지 않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회가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등록금 자율화’ 여론에 힘을 실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등록금인상률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자료에서 “교육부가 국가 장학금 I I 유형 지원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규정된 등록금 인상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올림픽대로 위 문화시설… 한강 잇는 ‘뿔개공원’ 생긴다

반포본동~반포한강공원 구간
주거지에서 한강까지 직접연결
혁신적인 설계위해 국제 공모

오는 2027년 올림픽대로 상부에 주거지와 한강을 잇는 뿔개공원이 생긴다.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부지에 총 1136억2200만원을 들여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날 국제설계공모 공고를 내고, 오는 13일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 뒤 심사를 거쳐 올 6월 최종 설계안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신반포로와 반포한강지구를 잇는 뿔개공원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공공기여(기부채납)로 마련된다. 총 1만㎡



뿔개공원 조감도 예시.

/서울시

규모 부지에 뿔개공원과 문화시설(전시장 3300㎡)이 만들어진다.

시는 올림픽대로가 가로막고 있어 나들목과 육교 등으로만 이동할 수 있던

한강공원을 걸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입체적인 뿔개공원을 설치, 한강 접근성과 지역 간 연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공원에는 근현대 아파트 주거상과 역

사를 보여주는 전시장과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서며, 각종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조성된다.

시는 국내·외 설계 전문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달 13일 오후 3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공모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한국어·영어 동시통역과 함께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에 처음 만들어지는 뿔개공원인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을 통해 한강을 시민의 삶 더 가까이 끌어들이 올 수 있게 됐다”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원 디자인으로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제설계공모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0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신규공무원 2594명 채용

경기도가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을 선발한다.

도는 신규공무원 선발계획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에 1일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한 것으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12명 ▲8·9급 2381명 등 26개 직류에 총 2393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30명 ▲7급 25명 ▲9급 146명 등 19개 직류 201명을 선발한다.

이 중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와 조직 구성 다양화를 위해 장애인 272명, 저소득층 88명, 기술계고 43명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이 많아 숙지와 주의가 필요하다. ▲7급 이상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8·9급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특수직급에서 전산직류를 제외해 자격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9급 지적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에 지적기능사 추가 ▲일부 시군의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반토목 및 건축직류 거주지 제한 요건 적용 완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추가 부여 등이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

취약계층 식사 지원… 대중교통 막차 연장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4257명 정기전보

서울시, 8~13일 ‘설 종합대책’ 시행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2024 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설 연휴 취약계층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무료 급식과 도시락을 챙기고, 명절을 준비하는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성수품 거래 물량을 늘린다.

우선 시는 단점급식소와 일반음식점(곰나무카드 가맹점)을 통해 결식 우려 아동 2만7845명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지역 내 급식소나 문을 연 음식점이 없을 경우 가공조리식품을 전달한다.

노숙인 시설 35곳은 하루 세끼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특식비(1식 4000원)를 지원하고 도시락

과 밀반찬을 추가로 배달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는 위문비로 3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고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사과, 배, 양파, 조기, 명태 등 9개 주요 성수품을 최근 3년 평균 거래 물량 대비 105% 수준으로 공급한다. 출하장려금·출하손실보전금 등의 특별 지원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귀성·귀경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명절 당일과 다음 날(2월 10~11일)에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연장한다. 지하철은 1~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마지막 열차가 익일 오전 2시에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총 236회 증회 운행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올 신설 공립유치원 희망자 우대
보직교사 2년 채우면 전보 유예도

서울시교육청은 3월1일자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정기전보 인사발령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보대상자는 공립 유치원 교사 230명과 공립 초등학교사 4027명 등 총 4257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4학년도 신설되는 공립 유치원에 전보 희망자를 우선 배정하고, 학급 감축 현황을 고려해 배치했다. 전보 원칙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교사에 대한 전보 우대를 추가하고, 관내 전보 시 거주지, 도로망, 경력, 근무 유치원 등도 고려했다.

초등학교 교사 전보에서는 교사의

순환근무원칙에 따라 비전산 전보 가능 비율을 전년과 같은 10%로 유지했고, 관내 전보는 거주지와 도로망, 근무학교 등을 고려해 전산 배정했다. 이와 더불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교사에 대한 전보 우대를 추가했으며, 보직교사 경력 24개월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보유예 10항을 신설했다. 또한, 일반학교 현임교초빙을 1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전보 발령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는 새로 전입해 오는 교사들을 포함해서 전 교원이 참여하는 ‘신학년 집중준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LG화학 ‘생명과학’ 연매출 1조 돌파… 신성장동력 자리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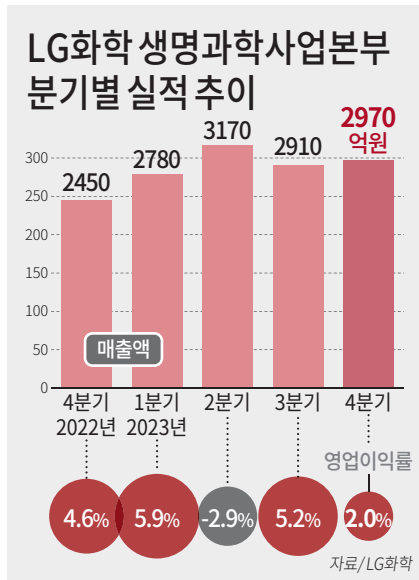
작년 생명과학사업본부 매출
전년비 30% 성장 1조1834억

주력제품 성장·인수합병 ‘효과’
올 매출 1.3조 목표, R&D 확대

LG화학의 ‘생명과학사업본부’가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2023년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 55조2498억원, 영업이익 2조529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8.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1% 감소했다.

특히 LG화학은 글로벌 경기 침체, 전가차 수요 성장세 둔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에 주력한 결과, 생명과학사업본부가 첫 연간매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LG화학에 따르면 생명과학사업본부의 2023년 매출은 전년 대비 30% 성장해 1조1834억원이다. 영업이익은 245억원이다. 지난 2022년의 연매출은



9100억원 수준이다.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의 매출은 2970억원, 영업이익은 60억원이다.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는 2023년 1분기 2780억원, 2분기 3170억원, 3분기 2910억원 등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이러한 호실적의 바탕에는 성장호르몬제 ‘유티로핀’,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유셉트’ 등을 비롯한 주력 제품들의 성장을 비롯해 아베오 파마슈티컬스 인수합병이 주요했다.

국내 최초 성장호르몬제인 유티로핀의 경우 지난 2023년 상반기 국내 성장호르몬 시장에서 점유율을 44%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 LG화학은 지난 2023년 1월 아베오 파마슈티컬스를 인수했다. 당시 아베오는 신장암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 ‘포티브다’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하고 매출 성장을 확보했다. 포티브다는 지난 2022년 신약 출시 2년 만에 1300억원의 매출을 돌파했다.

이후 포티브다는 지난 2023년 전년 대비 53% 늘어난 2000억원대 매출을 달성했다. LG화학은 중장기적으로 포티브다의 매출이 오는 2027년 4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화학의 생명과학사업본부는 연

구개발 영역에서도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의 성과를 이뤘다.

통풍 치료제 신약 ‘티글릭소스타트’는 주요 시장인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희귀 비만증 치료제 후보 물질 ‘LB54640’의 경우 올해 1월 미국 리듬파마슈티컬스와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해 LG화학은 10%에 가까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도 꾀했다. 최근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음성 두경부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임상 3상에도 본격 착수했다.

LG화학은 생명과학사업본부의 올해 매출로 1조3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주력 제품의 지속 성장과 해외 시장에 진출한 제품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혁신 신약 출시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홈플러스는 오는 8일까지 설 명절 필수 농산물인 사과, 배, 대파, 계란을 대형마트에서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할인 판매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회원 대상 농수산물 할인

홈플러스는 오는 8일까지 설 명절 필수 농산물인 사과, 배, 대파, 계란을 대형마트에서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할인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설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하는 물가안정 지원 행사의 일환이다. 설 명절 필수 농산물 4종을 농할쿠폰(농축산물 할인쿠폰) 적용 시 3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홈플러스 자체 할인(최대 20%)을 더해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CJ제일제당, 세계에 그린바이오·푸드테크 역량 알려

美 조지아주 ‘2024 IPPE’ 참가
축산·사료·육가공 분야 박람회
글로벌 1400개 이상 기업 참여

CJ제일제당바이오사업부문이 세계 최대 규모의 축산·사료·육가공 박람회인 미국 ‘2024 IPPE’에 참가해 자사의 그린바이오 등 최신 푸드테크를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IPPE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축산, 사료 및 육가공 분야 국제 박람회다. 1월 30일부터 3월 동안 진행되는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1400개 이상의 기업과 3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한다.

CJ제일제당은 IPPE에 부스를 열고, 독보적 그린 바이오테크(미생물 및 식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성 소재



CJ제일제당의 2024 IPPE 부스에 관람객들이 모여있는 모습.

나 종자, 첨가물 등을 만드는 분야)에 기반한 사료용 아미노산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특히 과립 형태로 만들어 기존 분말 제품 대비 편의성을 높인 ‘베스트아미노 쓰레오닌 프로’와 ‘트립토판 프로’, 동물의 성장에 도움

을 주는 각종 기능성 스페셜티 아미노산 제품들이 관람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CJ제일제당은 ‘베스트아미노(BEST AMINO)’ 브랜드로 트립토판, 쓰레오닌, 라이신, 메치오닌과 고부가스페

셜티 제품인 발린, 알지닌, 이소류신, 히스티딘 등 총 8종의 세계 최대 사료용 아미노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트립토판, 알지닌, 이소류신은 글로벌 시장 1위에 올라 있다.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동물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 걸친 생산기지를 통한 안정적 공급 역량도 홍보했다. CJ제일제당은 현재 북미·남미·중국·동남아에 위치한 글로벌 생산시설에서 다양한 아미노산 제품을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호환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 시장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BAT로스만스 송영재 신임사장 선임

BAT로스만스가 송영재 신임 사장(사진)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송영재 신임 사장은 재무 및 전략기획 역량을 기반으로 유럽 및 아시아의 글로벌 담배 시장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업계 전문가로, BAT로스만스를 혁신적인 미래로 이끌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일반 연초에서 비연소 제품으로의 산업 재편이 진행 중인 국내 담배 시장에서 BAT로스만스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투자를 위한 경영 효율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롯데칠성, 페트병 경량화 플라스틱 줄인다 “상속세 5400억 재원마련 최선의 방안”

연간 배출량 7.8% 감축 기대

롯데칠성음료가 ‘아이시스’ 및 PB제품을 포함한 먹는샘물 전 제품에 병 입구 부분 경량화를 진행한다. 이번 경량화를 통해 생수 제품 플라스틱 배출량은 연간 7.8%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구 높이를 18.5mm에서 12.8mm로 낮춤으로써 페트병 500ml 기준 프리폼 중량을 13.1g에서 11.6g로 줄이고 신규 뚜껑을 적용한다. 이번엔 진행되는 경량화는 롯데칠성음료가 생산하는 먹는샘물 전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용량별 용기 중량이 최대 12%까지 가벼워진다.

‘아이시스’는 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페트병 경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이시스’ 500ml의 경우

출시 당시 용기 무게가 22g에서 현재 13.1g약 40.5% 무게가 가벼워졌다. 이번 경량화로 출시 대비 47.3% 무게가 낮아진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2017년, 플라스틱 배출량 감축을 위해 ‘아이시스’ 제품의 병 입구와 뚜껑의 높이를 낮추어 경량화를 진행하였으나 뚜껑 개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후 수년간 연구 및 테스트를 진행한 끝에 용기 병구 높이를 낮추어 플라스틱 배출량을 감축하는 동시에 병뚜껑의 높이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유지해 제품 개봉을 편리하게 한 경량화를 적용한다.

‘아이시스’는 2020년 국내 최초 무라벨 제품 출시에 이어, 2021년 rPET 기술 및 품질 검증 상용화를 진행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회장
OCI그룹과 통합배경 밝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사진)이 OCI그룹과의 통합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송 회장은 앞으로도 한미약품그룹이 혁신신약 개발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1일 한미약품그룹에 따르면 최근 송영숙 회장은 사내 임원들과 대화에서 “두 아들이 이번 통합에 반대하는가 처분을 신청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100년 기업 한미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임성기 회장 별세 후 부과된 5400억원 규모의 상



속세는 송영숙 회장 가족의 고뇌를 깊게 했다”며 “‘선대 회장이 한평생 일군 한미그룹을 통째로 매각하는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절박한 위기감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0월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3만원 이하로 하락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OCI그룹과의 통합안’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창업주의 유산인 ‘한미의 DNA’를 지키며 연구개발 중심 제약기업으로 단단히 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된다”는 송영숙 회장의 결단으로 급진졌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도 송 회장의 결단에 만장일치라는 의사 결정으로 힘을 실었다. /이청하 기자

게임업계, 체질개선에 성과 갈려… 넥슨 ‘역대급’ 실적 예고

차주부터 지난해 실적 발표
대표기업 ‘3N’ 전망 엇갈려
“대부분 게임사 위기 직면”

국내 게임업계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오는 8일 엔씨소프트와 넥슨을 시작으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특히 3N(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의 실적에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어 업계 이목이 쏠린다.

넥슨은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지만 엔씨소프트는 한 번 더 부진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대부분의 게임사들도 우울한 성적표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대표기업인 3N인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은 설 전날인 8일부터 엔씨와 넥슨을 시작으로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넷마블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해진 바 없지만 비슷한 시기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외 8일 카카오킴즈, 15일 펠어비스 등의 순으로 실적을 공시한다.

이 가운데 3N의 실적에 희비가 갈릴



넥슨사옥 전경

/넥슨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넥슨은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4분기 매출이 879억~962억엔(약 7934억~8683억원), 영업이익은 114억~178억엔(약 1029억~160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9% 늘고, 영업이익은 4~62% 증가할 수 있다.

테이브 더 다이버,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FC온라인 등 기존 게임의 꾸준한 성장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이에 넥슨이 연매출 4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영업이익은 1조3855억원이 예상된다.

넷마블은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넷마블이 작년 4분기에 매출 6578억원, 영업이익 4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7월과 9월 출시한 신의 탐, 세븐나이츠키우기의 흥행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스톤에이지 IP활용 게임이 중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경

우 약 69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엔씨소프트는 다소 우울한 성적표를 받을 전망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엔씨의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전망치평균)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4%, 72.4% 감소한 4414억원, 131억원이다.

리니지 IP게임 매출이 감소하면서 ‘탈리니지’를 목표했던 엔씨가 지난해 야심차게 선보인 ‘TL(쓰론 앤 리버티)’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TL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실적도 큰 폭의 감소가 예측된다.

2K(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 중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1조369억원, 763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9.7%, 56.6% 감소했다. 지난해 선보인 아키에이지와 아레스가 흥행을 거두지 못하면서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매출 1조8114억원, 영업이익 7138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 2.3%, 5.0%씩 줄었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 IP(지식재산)의 글로벌 흥행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밖에 중견게임사인 위메이드, 컴투스 등도 적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대부분의 게임사들의 실적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교보증권의 김동우 연구원은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장과 시장 구성 변화가 겹치면서 2023년은 국내 상장 게임사 대다수가 가파른 영업이익 감소를 겪을 것”이라며 “2024년에는 이 같은 부정적 기저가 완화되고, 장르 및 플랫폼 다변화를 통해 턴어라운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위기를 감지한 게임사들도 올해 실적 반등을 위해 상·하반기 전략을 세우는 분위기다. 상반기에는 인건비 감소, 게임서비스 종료, 신기술 개발 등 전사적인 경영에 무게를 두고, 하반기 신작 출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실적이 밝지 않은 가운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는 긴축경영을 하면서 게임사 본연의 역할인 신작출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게임업계 신작·이벤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람다 파트너사 선정

동물대체솔루션 플랫폼 연구 협력
하반기에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계획

오가노이드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유럽 바이오테크계의 거물’로 꼽히는 안드레 거스 대표가 설립한 세계 최초의 동물대체시험 플랫폼 람다(Lambda Biologics GmbH)의 첫 파트너사로 선정되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협력을 통해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동물대체솔루션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람다를 창업한 안드레 거스 대표는 유럽 최초의 세포 은행이자 세계 3위 규모인 비타34(Vita34)의 회장직을 포함해 바이오테크 계에서 10여 건이 넘는 인수합병(M&A)을 성사한 업계의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다. 람다는 다



양한 동물대체시험법을 필요한 연구자나 업체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협력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며, 양자 간 기술 교류를 넘어 연구 데이터베이스 개발, 고객 경험 위주의 마케팅 및 영업 개발 및 협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거스 대표는 한국 업체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에 대해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약물 평가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한 점이 독보적”이라며 “건강 기능식품 분야와 화장품 분야에서도 기술 사업화에 성공한 점 등 오가노이드

의 확장성을 시도하는 점이나, ISO 9004 인증을 받고 재생 치료제 임상 투여를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 품질의 오가노이드 기술을 보유한 점”을 협력의 이유로 밝혔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사진)는 “앞으로 비임상 시험을 시행하는 기업들과 오가노이드 플랫폼 개발 기업 간의 연구 협력은 증가할 것”이라며 “람다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럽의 대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인 독일 라이프치히에 본사를 두고 오는 2024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아이템매니아 “출석하고 세뱃돈 챙기세요”

‘설레는 매니아 즐기기’ 기획

아이엠아이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가 설 명절을 맞아 ‘설레는 매니아 즐기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설 연휴를 포함하여 약 2주간 진행된다. 어릴 적 설 명절을 가장 설레게 했던 것은 바로 세뱃돈. 아이템매니아는 회원들이 설 연휴 동안 게임도 즐기고 어릴 적 세뱃돈 모으기 추억도 떠올릴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해당 세뱃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총 세 가지다. 이벤트 기간 동안 아이템 매니아를 3일 연속 출석하거나 3만원

이상 구매를 3번 완료하면 세뱃돈을 받을 수 있다.

세뱃돈과 함께 룰렛돌리기 기회도 각각 한번씩 주어진다. 해당 룰렛에는 최대 1000원의 세뱃돈 당첨 기회와 ‘짱’ 또는 ‘출석초기화’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어 복불복의 아슬아슬한 재미까지 더했다.

이용자들은 이벤트를 통해 획득한 세뱃돈으로 할인쿠폰, 물품 강조 쿠폰, 마일리지 등 다양한 아이템 거래 쿠폰을 구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주, 운세를 확인할 수 있는 이용권도 세뱃돈으로 구매 가능하므로 새해에 대한 궁금증을 재미있게 운세로 풀어볼 수 있다.

/최빛나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 ‘빌보드 파워 100’ 선정

방시혁하이브의장(사진)과 스쿠터 브라운 하이브 아메리카 CEO가 ‘2024빌보드 파워 100’에 선정됐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스쿠터 브라운 하이브 아메리카 CEO는 기업을 번영시키고 업계를 혁신한 음악 업계 40인의 리더를 꼽는 ‘리더보드’ 부문 18위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방 의장은 2020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네 번째 파워리스트에 선정됐다.



/최빛나 기자

미샤, 엘리자베스 올슨 인터뷰 공개

‘나이트리퍼어 앰플 5X’ 후기 전해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브랜드 앰버서더인 할리우드 배우 엘리자베스 올슨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에이블씨엔씨 미샤는 ‘엘리자베스 올슨’의 새로운 인터뷰 영상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상에서 엘리자베스 올슨은 보랏빛 앰플로 알려진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리퍼어 앰플 5X’의 실제 사용 후기를 전한다. 엘리자베스 올슨의 인터뷰 영상은 미샤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미샤는 보랏빛 앰플을 중심으로 엘리자베스 올슨과 ‘뷰티 이즈 리얼리티’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뷰티 이즈 리얼리티’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연출되거나 꾸며지는 것이 아닌 본질 그 자체에 있다는 의미다. 미샤는 불필요함을 덜어낸 효능 중심의 합리적인 브랜드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미샤는 지난 2023년 엘리자베스 올슨과 해당 캠페인을 진행해 ‘비타씨플러스 잡티씨 탄력 앰플’과 ‘개똥썩 진정 앰플’의 매출을 전년 대비 각각 39%, 223% 올린 바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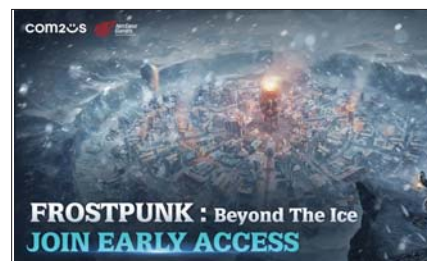
‘프로스트펑크’ 모바일판 얼리 액세스

컴투스 미·영·필리핀서 서비스

컴투스의 모바일 명작 생존 게임 ‘프로스트펑크: 비온드 더 아이스’가 미국, 영국, 필리핀 3개 지역에서 얼리 액세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컴투스는 ‘프로스트펑크: 비온드 더 아이스’를 주요 시장인 미국, 영국, 필리핀 등 3개국에 얼리 액세스 형태로 선보이고, 도시 경영 및 생존 게임 코어 유저층으로부터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 글로벌 정식 출시까지 적극적으로 게임에 반영할 계획이다.

‘프로스트펑크: 비온드 더 아이스’는 글로벌 누적 판매량 300만 장을 기록한 명작 생존 게임 ‘프로스트펑크’의 모바일 버전이다.



‘프로스트펑크 비온드 더 아이스’ 대표 이미지

/컴투스

모바일 버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있다. 대표적으로 자연재해를 직접 극복할 수 있는 미니 게임 콘텐츠인 ‘웨더 스테이션’과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전투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탐험’이 있다. 이 밖에도 교역 시스템과 동물 구조 센터 등 새로운 콘텐츠도 마련돼 있다. /최빛나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LG복지재단, 박언휘·배점옥씨 ‘LG의인상’ 선정

진료·미용 등 봉사활동 지속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 헌신”

오랜 기간 사회에 헌신한 이웃들이 ‘LG의인상’을 받게됐다.

LG복지재단은 박언휘 씨와 배점옥 씨를 새로운 LG의인상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씨와 배 씨는 30여년간 각각 무료 진료와 미용 봉사를 이어오며 온기를 나눠왔다.

박 씨는 1996년 경상북도 나병촌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8년간 무료 진료 봉사를 제공해왔다. 울릉도와 독도 등 도서산간벽지와 베트남 등 해외까지 의료 사각지역을 방방해 도움을 줬다. 최근에도 복지시설과 장애인 시설에서 촉탁 진료를 진행 중이다. 1만5000명 이상 환자를 무료로 돌봤다.

2004년부터는 소외계층에 매년 1억 원 이상 독감백신 등을 기부하기도 했



복지시설에서 진료봉사하는 박언휘 씨

다. 2012년부터는 장애인 합창단과 봉사단도 후원한다.

박씨는 “어린 시절 울릉도에서 살며 열악한 의료환경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고 의사가 되기로 다짐했다”며 “힘 달는 데까지 봉사와 기부를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배 씨는 1995년 부산에서 미용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사로 활동하며 복



배점옥 씨가 미용 봉사를 하는 모습.

지관과 요양원 등에서 봉사를 이어왔다. 1998년 울산의 한 미용학원에 강사로 취직한 후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울산 북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가 무료 미용 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05년에는 미용학원을 인수하고 제자들과 울산 미용봉사단 ‘하늘 한마음회’, 장애인 복지시설 미용봉사단 ‘로드회’ 등을 꾸려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는 거

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직접 찾아가 미용봉사를 이어갔다.

배씨는 이미용 분야 봉사자를 늘리기 위해 봉사자들에게 이미용 기술을 가르쳤고, 미용봉사뿐 아니라 지역복지관에서 급식, 목욕, 간병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살폈다.

배씨는 “내가 가진 미용 기술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라 밝혔다.

LG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봉사의 길을 걸어온 두 분의 숭고한 이웃사랑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LG의인상은 2015년 故 구본무 회장 뜻에 따라 제정돼 2018년 구광모 LG 대표 취임 후 일반 시민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BMW-서일대, 전문인재 양성 MOU

BMW그룹코리아가 전문 기술인력 육성에 힘을 보탠다. BMW는 1월 31일 서일대학교와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BMW 그룹 코리아 서비스 총괄 정상천 본부장(왼쪽)과 서일대학교 오선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MW그룹코리아



대한항공, 주요사업장 ‘복조리 걸기’ 행사

대한항공은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2일부터 15일까지 ‘복조리 걸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고객의 건강과 만족을 기원하고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보존해 나간다는 취지로 인천국제공항, 강서구 본사 및 서소문 사옥, 한진빌딩, 한진그룹 산하 국내 호텔 등 총 6곳의 사업장에 걸리게 된다. /대한항공



지난 31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서 정관장 봉사단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효배달 캠페인에 참여한 모습 /KGC인삼공사

KGC인삼공, ‘효배달’ 등 사회공헌 활발

취약계층 어르신 등 건강 나눔
2억 상당 ‘종합효도패키지’ 전달

KGC인삼공사가 설을 맞아 6·25 참전 용사와 홀로 계신 어르신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최근 (사)희망을 나누는사람들을 통해 6·25 참전용사 및 배우자 3000여명에게 정관장 제품을 전달한데 이어 홀로 계신 어르신을 위한 건강 나눔 사업인 ‘효(孝)배달’ 캠페인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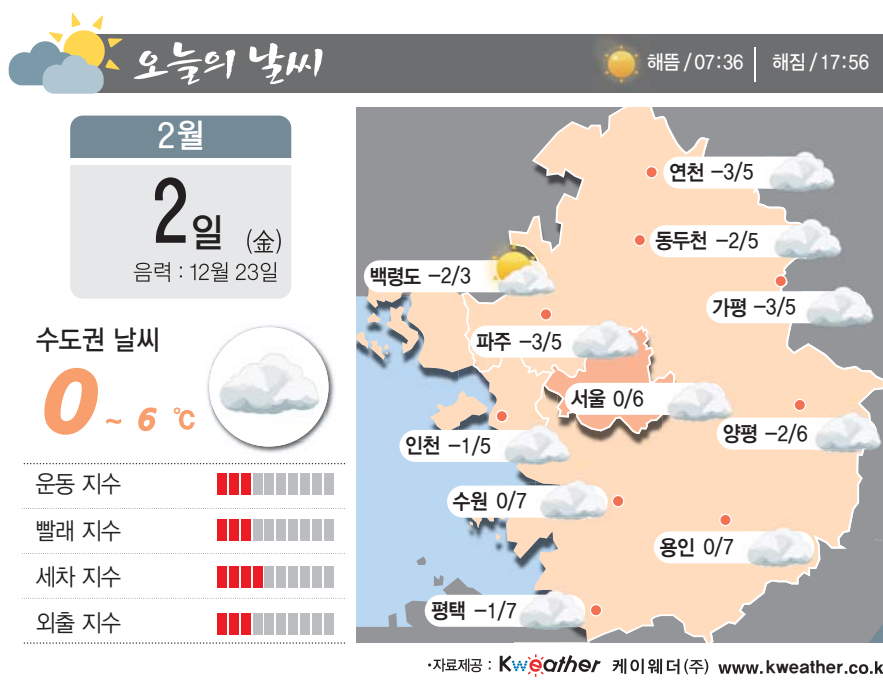
‘효(孝)배달’ 캠페인은 직원들이 모은 동일한 금액을 회사가 1:1로 매칭시켜 지원하는 ‘정관장 펀드’에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네티즌의 참여로 모아

진 금액을 더해 재원으로 사용했다.

‘효(孝)배달’ 캠페인을 통해 회사는 물론 임직원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는 이번 행사는 우리 주위에 소외된 어르신에게 ‘효(孝)’를 선물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한다.

마련된 재원은 복지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 홀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용품과 떡국, 만두, 과일 한과 등 명절음식을 준비하는데 전액 사용된다. 여기에 KGC인삼공사가 기부한 2억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제품을 더해 어르신들은 정관장 제품, 건강용품, 설음식 3종이 담긴 ‘종합효도패키지’를 받게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에이스경암, 1억 4000만원 상당 백미 기부

성남시 기탁식... 5900포 전달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안성호 이사장(사진)이 민족대명절 설을 앞두고 ESG경영 일환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백미를 성남시에 기탁했다.

1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에이스경암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진행된 쌀 기탁식에서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생활지원을 위해 마련한 백미(1kg) 5900포를 전달했다.

기증한 백미는 성남시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5708세대와 소년·소녀 가장 192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에이스경암이 지난 26년 동안 지역사회에 전달한 쌀을 모두 합치면 누적 14만 8360포로 무게는 1483t에 달하며 금액으로 환산할시 35억4000만원에 이른다.

안 이사장은 “에이스경암은 사회적 약자가 끼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자사 임직원과 사회공동체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출선수범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마사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바로마켓’ 후원금 전달식에서 (왼쪽부터)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박찬정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동국홀딩스 CVC 대표이사 배창호 내정

동국제강그룹지주사 동국홀딩스가 1일 임원 인사를 통해 배창호(사진) 전 신한캐피탈 투자금융 1본부 본부장을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동국기술투자(가칭)’ 대표이사 내정자로 영입했다.

배 내정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종합금융·씨버러스코리아·SBI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 경험을 쌓았다. 이후 2007년 신한캐피탈에 입사해 투자1부 부장·심사1부 부장을 거쳐 투자금융 1본부장을 역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에쓰오일, 문경 순직 소방관 유족에 위로금

3000만원씩 6000만원 전해

에쓰오일(CEO·안와르알히즈아지·사진)이 문경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유족에 위로금을 전달한다.

에쓰오일은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육가공공장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경북 문경소방서 고(故) 김수광 소방교(만27세)와 고(故) 박수훈 소방사(만35세) 유족에게 위로금 각 3000만



원씩, 총 6000만원을 전달한다고 1일 밝혔다. 고(故) 김수광 소방교와 고(故) 박수훈 소방사는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육가공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진화 활동을 하던 중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위아, 서천시장 화재피해 복구 지원

성금 5000만원 전달

현대위아가 충청남도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현대위아는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복구와 피해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50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돕기 위해 이번 성금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화재 피해가 상인들의 재산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성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부음

▲이중형(전 덴소풍성 대표)씨 별세, 이은숙(전 중랑초등학교 교장)씨 남편상, 이무송(서울아산병원 교수)·무열(중앙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의과대학 교수)·무영(개인사업)씨 부친상= 1일,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일. (02)-860-3500 ▲박금례씨 별세,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빙모상=1일 오전 10시 빈소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9호, 발인 3일 오전 10시 분당 메모리얼 파크

Since 1996
햇터그룹

가성비 좋은 너로 정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무료 창업 교육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교육 일정

2024년 2월 15, 22, 29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교육 정원

매월 선착순 30명 (정원초과 시 익월 수강)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 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교육 목표

실전교육 전문적인 사례 중심
매출상승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전문양성 성공적인 창업 배출

수강 혜택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고급홍삼세트 증정

수강 방법

1. 대한홍삼 홈페이지 > 상담신청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2. 문자 or 이메일로 성함과 연락처를 전송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법인폰 : 010-4480-0045 / E-mail : haettercs@naver.com

교육 주관



햇터그룹

교육 강사

햇터그룹 회장 박광섭 (CEO 35년 경력)



햇터

햇터그룹지주회사



브레인TV

3천만이상 시청자 보유
방송전문기업

대한홍삼

국내5대 브랜드
홍삼전문기업

한삼장홍삼

건강식품 / 용품
유통전문기업

햇터라이프

업계최초 계층형 B2E
E커머스 플랫폼 전문

교육 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11번 또는 7호선 9번 출구에서 600m

교육 문의

햇터그룹 창업아카데미 고객센터 010-4480-0045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복수의결권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국회는 지난 2023년 4월 27일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1주당 2~10개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의결했고, 11월부터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됐다. 복수의결권 또는 차등의결권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빅테크기업과 같이 유니콘을 지향하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개발에서 제품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이오 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지분매각에 의한 자금조달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상실의 위험이 없이도 기업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복수의결권은 창업경영자에게는 참호 구축(entrenchment)을 통해서 경영권의 안정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대리인 문제 발생으로 감시비용(monitoring cost)이 늘어나는 지배구조문제가 뒤따른다.

그런데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오던 인수합병(M&A) 활성화, 벤처자본생태계의 선순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추진정책과는 정면 상충이 된다. 어쩌면 이런 추진정책들은 복수의결권도입의 선결과제라도 언급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M&A 활성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복수의결권은 M&A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 중의 하나로 작동해 오히려 활성화를 저해한다. 우리나라 M&A 활성화 정도의 한 대용치인 벤처캐피탈의 M&A에 의한 투자회수금액 비중은 2021년 0.6% 수준에 불과하다.

둘째, 벤처자본생태계에서 펀드결성, 투자, 회수, 새로운 펀드결성 순으로 이뤄지는 선순환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M&A 부진으로 인해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액 회수에서 기업공개(IPO) 의존도는 2021년에 32.1%일 정도로 매우 높다. 복수의결권도입 벤처기업의 경우 향후 M&A가 제한됨은 물론 후술하는 대리인 비용 증대로 인해 IPO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들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의 자금회수는 현재보다 더 어려워짐과 동시에 이들 기업에 대한 외부투자자들의 투자기피로 이어져 벤처자본생태계의 선순환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셋째, 지배구조 개선은 자본시장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복수의결권도입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경영으로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는 기업지배구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수준에 대한 평가의 하나로서 살

펴볼 수 있는 2021년 5월에 발간된 아시아 지배구조연합회(CG Watch 2020)에서는 한국을 아시아지역 12개국 중 9위인 종합 점수 52.9%로 낮게 평가하고, 한국의 복수의결권 제도도입이 지배구조개선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동안 해외 복수의결권도입현황을 보면, 2022년 현재 OECD 36개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23개 나라가 복수의결권을 도입했고,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2018년, 중국과 인도가 2019년 도입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 복수의결권 제도가 과연 도입기업의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필자가 학술논문으로 게재한 해외 복수의결권과 기업가치 간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복수의결권도입기업에 대한 자본시장 반응은 물론이고 도입기업의 현금흐름 등을 이용한 기업성과연구에서도 대부분이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부정적인 결과들이었다. 이를 반영이나 한 듯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이 2018년에 복수의결권을 유지한 기업의 주식편입을 금하는 원칙을 세운 적이 있었다. 또한, 미국 기관투자자협회(CII)가 2019년 NYSE와 나스닥(Nasdaq)에 복수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금지를 촉구한 서면을 보낸 적이 있음도 곱씹어 볼 일이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몰라서 못받는 2금융권 이자환급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누구에게나 자금이 되는 문구가 하나쯤 있듯 나에게도 그러한 문구가 있다. '몰라서 못받는 000'이다. 유튜브 영상 썸네일에 이렇게 뜨면 틀지 않고는 못배긴다. 다들 아는 정보인데 나만 모를 수 있다는 불안감과 늦게 알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억울함이 더해진 결과다.

금융당국이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연 4%가 넘는 금리로 받은 차주는 5일부터 8일사이 '별

도의 신청없이' (4%)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몰라서 못받는 경우는 없다는 소리다. 그러나 2금융권은 다르다. 2금융권(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은 '직접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2금융권에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이 5% 초과 7% 미만 금리인 경우다. 연 5.5%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는 0.5%분율, 연 7%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는 2%분율 환급받을 수 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신청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은 2금융권의 필수로 보인다. 2금융권의 금리가 높다보니, 은행권에 비해 1인당 환급규모가 크다. 은행은 1인당 약 73만 원을, 2금융권은 약 7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

아 빠짐없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몰라서 못받았다고 차주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처럼 보인다.

상생금융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번 이자환급은 고금리에 고통받는 차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이런 취지라면 은행권보다 고금리인 2금융권 차주들이 더욱 혜택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몰라서 못받는 것만큼 억울한 것은 없다. 별도 신청없이도 입금해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면,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길 바란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2일 (금 12월 2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48년생 천을귀인의 도움이 있어 어려움이 해소된다. 60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언쟁할 일은 일단 피하고 보라. 72년생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된다. 84년생 재테크에 감사를.



37년생 남이 잘못된 일을 뒤집어줄 수 있다. 49년생 친구와 금전거래를 하면 친구 잃고 돈도 잃게 된다. 61년생 새로운 인연을 만나 일자리가 생긴다. 73년생 이해관계자의 이슈파악부터 하여 대응하라. 85년생 산에서 미끄럼 주의.



38년생 삼형살이 있으니 교통사고를 주의. 50년생 계획을 확실히 세운 후에 나서면 몸도 마음도 가벼운 법이다. 62년생 외화내빈이니 상대방에게 속지 말라. 74년생 잠시 여유를 갖도록. 86년생 상처를 입어도 약이 있다. 건강을 체크.



39년생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니 나 자신부터 살펴보라. 51년생 조직 내에서 불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63년생 회사사람의 개인 신상에 관심을 두지 마라. 75년생 유리한 국면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라. 87년생 수면 부족으로 피곤하다.



40년생 귀문살이 작용하여 이론과 현실이 엇박자를 낼 수 있으니 조심하라. 52년생 일의 경중을 따져 처리. 64년생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76년생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88년생 직원들과 좌우충돌하지 않도록.



41년생 문서운이 있어 계약할 일이 생긴다. 53년생 대인관계가 좋으니 모임을 고려해 보는 것도. 65년생 옛것이 가고 새것이 다가오는 운세이다. 77년생 투자 생각을 달리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된다. 89년생 바람기 때문에 고생.



42년생 사적인 일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다. 54년생 혼자 독주하면 주변의 질투와 시기를 받는다. 66년생 벗어나거나 모자란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78년생 밖에서 번기는 사람이 있다. 90년생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상황.



43년생 직장에서 인정받고 일취월장하는 운세다. 55년생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을 가슴에 새겨라. 67년생 전업이나 전직을 고려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다. 79년생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91년생 유머 감각으로 인기.



44년생 와신상담이라 힘든 것이 지나면 나중에 편해진다. 56년생 재물운이 들어와 투자할 일이 생긴다. 68년생 지금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건강이다. 80년생 조직 내에서는 단합이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92년생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45년생 자형 살이 작용하여 불미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57년생 주변 사람과 의견 상충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낸다. 69년생 과욕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다. 81년생 인연도 때가 있다. 93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46년생 한번 맺은 인연은 영원하도록 하라. 58년생 호사다마니 기쁨이 있는 곳에 시비가 생길 수 있다. 70년생 소소한 일에 신경을 쓰고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친다. 82년생 전화로 시간 보낸다. 94년생 탕화살이 있으니 화상을 주의하라.



47년생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나 무리하지 마라. 59년생 물오른 나무에 꽃이 만발하듯이 화려하다. 71년생 항상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명심하라. 83년생 인생 길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95년생 돈이 들어올 수이니 기쁜 날.

김상회의四季

신살(神煞)에 대한 이해

신살(神煞)이라고 하면 겁부터 나는데 살(煞)이라는 글자가 '죽일 살' 또는 '베다'라는 의미의 살(殺)자와 혼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신살(神殺)이라고도 쓰이니 그런 듯하다. '살'은 일종의 기운 에너지 정도로 치환해서 보면 좋을 것이다. 실제로 살(煞)자에는 죽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총괄하라는 뜻도 있다. 그러니 도화살이라고 하면 도화로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도화라는 기운을 총괄하라고 보아야 가할 것이다.

신살(神煞)은 신(神)과 살(煞)을 합친 합성어이듯 신이 좋게 작용하면 해당 기운을 좋은 방향으로 발현되게 하고 좋지않게 작용하면 뭔가 그 고유의 기운의 부정적 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중국이나 한국 같은 동북아인들의 정서에서는 귀신은 때에 따라 인간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인간들을 겁주기도 하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신살을 따질 때는 사주팔자에 있어서 천간과 지지 간의 특수적인 관계를 말하기에 다소 복잡하다. 예를 들어 팔자에 망신살이 있다 해도 항상 그 신살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망신살이 형살이나 충의 작용과 함께 있으면 허세기가 많고 자신이 아닌 타인을 함들게 하고 피해를 주는 식이다. 그러나 망신살이 있어도 귀인이 같이 있고 간지가 일주를 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길하다고 판별한다.

살의 작용은 매우 다양하게 발현되는 것이어서 어떤 신살만 가지고 논하기에는 부족하며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좋은 신살이 있다 해도 다른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일일이 살펴야 하므로 글자마다 합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세세히 살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종이나 업군에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도화살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관직이나 공무원 같은 조직 생활이면 반안살이 있는 것이 일단 바람직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1721-9851, 9826 / 021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6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46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작년 와인 수입 20% 급감... 위스키는 사상 최대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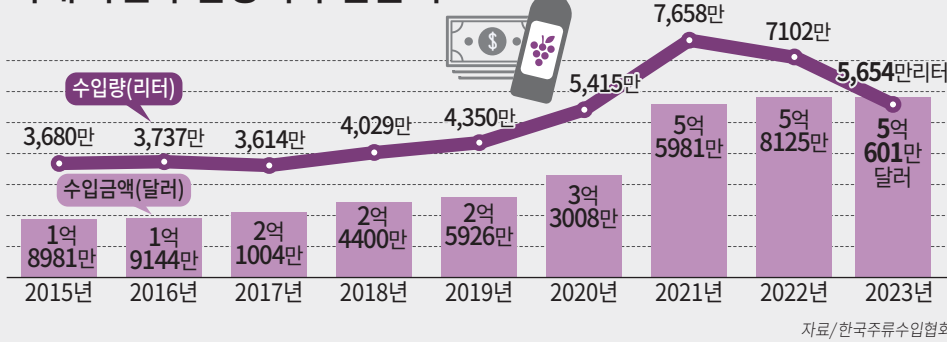
결국 꺾였다. 와인 시장 말이다. 와인 수입 규모와 수입액 모두 감소폭이 두 자릿수에 달하며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엔데믹과 함께 와인 열풍도 식은 셈이다.

와인의 빈 자리는 하이볼이 메웠다. 하이볼에 쓰이는 위스키와 리큐어는 수입 물량이 사상 최대로 늘었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와인 수입 규모는 5억601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2.9% 줄면서 십년 넘게 이어졌던 성장세가 멈췄다.

2억 달러 안팎에 머물렀던 국내 와인 수입 규모는 팬데믹 1년차인 2020년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넘어섰다. 2021년 5억5980만 달러, 2022년 5억8125만 달러로 6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었지만 뒷걸음질을 치게 됐다.

국내 와인 수입량과 수입금액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보면 감소폭이 더 크다. 작년 와인 수입량은 5654만 리터로 전년 대비 20.4%나 줄었다. 2020년 5414만 리터에서 2021년 7657만 리터로 급증해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7102만 리터, 2023년 5654만 리터로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국가나 와인종류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줄었다.

와인 수입액 기준으로 칠레 와인이 28.3%나 줄면서 구입 비중 1위 자리를 내줬고, 스페인 와인도 16.7% 감소했다. 미국과 이탈리아 와인 수입도 각각 10.1%, 21.1% 감소했다.

와인 수입 규모가 유지된 곳은 프랑스가 유일했다. 수입 물량은 20%가 넘게 줄었는데 수입액은 그대로 유지됐다. 프랑스 고가 와인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으로 나뉘면 수입액이 각각 20.5%, 11.5% 줄었다.

지난해 와인 대신 선택을 받은 것은 하이볼이다.

위스키 수입량은 3058만리터로 전년 대비 13.1%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두 배나 늘었다. 리큐어 역시 수입량이 1198만 리터로 전년 대비 63.2%

급증했다.

수입량 대비 수입액이 덜 줄어 일부 고급 화가 이뤄졌다고 감안해도 와인 시장은 일단 위축됐다고 봐야 맞을 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다.

국내 와인 수입사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인 나라셀라는 작년 3분기 보고서의 시장 전망을 통해 “와인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감소나 거시경제 악화영향으로 인한 와인시장의 위축이 반영되어 수입이 감소했다”면서도 “당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고급주류 및 와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와인시장은 2020년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대비 와인소비량이 아직 낮은 수준으로 향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력은 10위지만 인당 와인소비량은 1.9병(2021년)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마음의 슬픔이 불러온 ‘유행’

MZ세대 사이에서 유행을 끌면서 우후죽순 생겨났던 탕후루 가게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탕후루 전에도 큰 인기를 모으다 순식간에 사라진 디저트들이 있었다. 모카번, 슈니발렌, 대만 카스텔라, 벌집 아이스크림, 마카롱, 크로플, 소금빵 등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한가득이다. 최근 디저트 시장에 약과가 신흥 강자로 급부상하는 것을 보며, 유행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했다.

돌이켜보면 유행은 디저트 시장에서만 빠른 게 아녜다.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 별게 다 유행한다.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 공황장애가 트렌드가 되는 질환이었다면 지금은 우울증, 변아웃, 성인 ADHD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늘었다고 한다.

이 나라는 왜 이리도 트렌드에 민감한 것인가 궁금했는데 황현산 문화평론가가 쓴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에서 그 실마리를 얻었다. 저자는 어느 신문에서 ‘한국 시장이 마케팅의 시험 무대로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읽으며 이중적인 감정을 느낀다. 세계화의 성공과 더불어 한국이 세계 소비 시장에서 적지 않은 자리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흐뭇해하다가도 단 한 순간 단 한 걸음이라도 남에게 뒤처질세라 허둥지둥 달려가는 가쁜 숨소리를 듣는 것 같아 안타까워한다.

책은 한국이 특별히 유행에 민감한 나라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장 빨리 낡아 버리는 나라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어제 반짝이던 것들은 오늘 고깃집 유물이 되고, 내일 내릴 결정은 모래 성급한 판단이었음이 증명된다.

저자는 “마음속에 쌓인 기억이 없고 사물들



밤이 선생이다

황현산 지음/난다

속에 쌓아둔 시간이 없으니,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처음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며 “그날의 기억밖에 없는 삶은 그날 벌여 그날 먹는 삶보다 더 슬프다”고 한탄한다.

책은 이러한 슬픔이 유행을 불러왔다고 진단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과 교섭해온 흔적이 남지 않고 삶이 진정한 기억으로 그 일관성을 얻지 못하면 삶을 왜 사는지도 알 수 없게 된다. 내부에서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한 삶은 ‘밖에서 생산된 기호(유행)’로 그것을 대신한다.

저자는 “밖에서 기호를 구해 의미의 자리를 메울 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한다. 밖의 기호 속에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행의 문화는 열등감의 문화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인다”면서 “제 깊이를 지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은 세상을 살지 않는 것이나 다를 없다”고 말한다.

304쪽. 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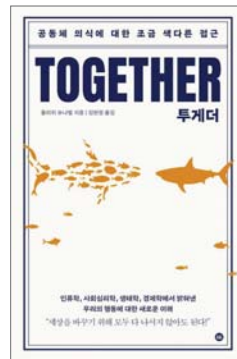
/김현정 기자 hjk10

투게더

올리히 슈나벨 지음/김현정 옮김/디 아니셔티브

호모 사피엔스가 이기적이라는 편견은 자본주의가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경제 체제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텔라웨어 대학 재난연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비상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놀랍게도 인간의 선한 면은 ‘긴급 상황’에서 더 활성화됐다. 책은 기후변화, 전염병, 사회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21세기 핵

심 역량은 ‘공동체 의식’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의식이란, 우리가 수많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는 ‘상식’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사고와 개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사고에 대해 좀 더 섬세한 감각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스스로 공동체 의식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이를 전파하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368쪽. 2만원.



모두가 가면을 벗는다면

데번 프라이스 지음/신소희 옮김/디플롯

사회심리학자이자 대학교수, 자폐인인 저자가 2018년 처음 블로그에 자폐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의 메일함에는 “혹시 저도 자폐인가요?”라고 묻는 이메일이 5000통 넘게 쌓였다. 그들이 이런 의구심을 품은 이유는 현재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이 “중산층, 이성애자, 남성, 백인”을 기준으로 세워졌다는 저자의 연구 결과 때문이다. 같은 자폐인이어

도 사회적 소수자이면 증상을 무시당한다. 자폐 당사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여자라 너무 예민하다’며 외면당하고, 유색인일 때는 ‘위험한 인물’로 구분돼 경계 대상이 된다. 책은 자폐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어떤 ‘정상성의 가면’을 쓰고 사는지, 그 가면이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412쪽. 2만2000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페터 베르 지음/장혜경 옮김/갈매나무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직업, 나이, 출신 대학 등을 줄줄이 읊는다. 돌이켜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특별히 없다. 저자는 현대 사회를 ‘무한한 기회, 불투명한 확신’으로 정의한다. 자유가 넘치지만 많은 게 불확실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남들이 좋다는 인생을 따라 살고, 종일 SNS를 들여다보며 광고에서 소개된 제품과 목표를 허겁지겁 좇는다. 저자는 “광고 산업이나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욕구를 알아차려야 한다”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라”고 조언한다.

304쪽. 1만8500원.



▲EU 공급망 실사·탄소국경제 임박... 정부,韓기업 부담 최소화 당부
▲“젤렌스키, ‘불화설’ 총사령관 곧 해임 발표할 듯”
/사진 뉴시스

▲美국방부, ‘中 군사 기업’ 목록에 메모리업체 YMTC 추가
▲캐나다 해안마을에 1800년대 난파선 나타나



▲중국, 대만 최근접 항로 변경 왜?... “해협 중간선 무력화 시도”
▲이란 정예부대 “전쟁 원하지 않지만 미국 공격하면 대응”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LG화학
생명과학 사업본부
연매출 1조 돌파
L1



Life

게임업계
체질개선에
성과 갈려
L2



• 옛 맛에 향수를... 새로운 맛에 재미를... •

국민껌 '3대장', 레트로 입고 전 세대 아우른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롯데웰푸드 '롯데껌'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추억의 옛날 광고 문구다. 이는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국내 껌 시장을 이끌어 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1969년, 롯데웰푸드는 껌 베이스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며 국내 최초로 껌 베이스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수입산 껌 베이스에 의존하던 경쟁사와 달리 롯데웰푸드는 껌 생산의 완전한 국산화를 실현할 수 있었고, 덕분에 외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껌을 국민들에게 선보이며 껌 시장에서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나갔다.

당시 제과업계에서 후발주자였던 롯데웰푸드가 껌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원료와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은 덕분이다.

1972년 롯데웰푸드는 회사의 성장 동력인 껌 사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이른바 '대형껌'이라는 새로운 전략 카테고리를 기획, 출시했다. 이 때 선보인 제품이 바로 지금까지도 롯데껌으로 불리며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국내 최장수 껌 '쥬시후레쉬', '스파이민트', '후레쉬민트' 3종이다.

대형껌 카테고리는 주원료에서부터 향과 식감에 이르기까지 기존 껌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한 단계 높은 고품질 제품이었기에 전격적으로 불인 이름이었다. 대형껌 개발을 위해 미국 등 해외의 기술자들을 초빙하는 등 연구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껌의 맛과 향기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맥 시코산천연 치클과 세계 각지로부터 엄선한 고급 향료를 사용했으며, 최신식 시설과 완전한 자동설비로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했다. 껌의 생명인 부드러운 감촉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껌 표면에 줄 무늬를 새겨 넣었다.

'쥬시후레쉬', '스파이민트', '후레쉬민트' 3종은 발매 직후 경쟁사 제품을 압도하며 큰 인기를 얻었고,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롯데껌 3종으로 불리며 국내를 대표하는 껌으로 기억되고 있다.

국내 껌 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됐다가 최근 다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마켓링크 자료에 의하면 국내 껌 시장은 2022년 1500억원 규모에 지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엔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3년에는 약 1700억원



'부활! 롯데껌' 캠페인을 소개하는 모델 김아영.



풍선껌 크게 불기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커다란 풍선껌을 불고있는 우승자 남기혁씨. /롯데웰푸드

국내 최초 껌 베이스 생산... 국산화 실현한 단계 높은 고품질 제품 '대형껌' 출시
쥬시후레쉬 등 3종으로 지금까지 사랑받아

새롭게 배합 개선, 상쾌함·단맛 오래 지속
레트로껌 프로젝트로 젊은 세대 공략해
이색적인 '풍선껌 크게 불기 대회' 진행도



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껌 시장을 이끌어온 롯데웰푸드의 껌 매출도 크게 회복했다. 지난해 껌 매출 성장은 22년 대비 25%에 육박한다. 롯데껌 3종을 포함한 대형껌 카테고리는 65% 성장했고, 젊은 세대에서 선호도가 높은 풍선껌 '왓따'의 경우 같은 기간 약 40% 성장했다. 나들이와 야외활동을 위한 장거리 운전에서 유용한 '졸음번쩍껌'도 60% 가량 성장했다.

롯데웰푸드는 최근 되살아나는 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활 레트로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작은 1972년 첫 출시되어 국민껌으로 자리를 잡은 '후레쉬민트', '스파이민트', '쥬시후레쉬' 등 롯데껌 3종과 더불어 '이브껌', '아라비카커피껌' 등 총 5종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롯데껌 특유의 상쾌함과 단맛을 오래 지속되도록 배합을 개선해 품질을 업그레이드 했다. 패키지도 롯데껌의 헤리티지를 최신 감성으로 재해석해 적용해 출시 당시를 기억하는 소비자에게는 향수를, 처음 접하는 젊은 소비자에게는 새로움을 전달한다.

또 롯데웰푸드는 레트로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활! 롯데껌' 캠페인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옛 시절의 느낌을 요즘 감성으로 재해석했다. 배우 김아영을 모델로 내세워 70~80년대 시절이 물씬 느껴지는 차림으로 '후레쉬민트', '스파이민트', '쥬시후레쉬', '커피껌', '이브껌' 등 롯데껌 5종을 소개한다. 당시 광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습관처럼 불러오던 롯데껌 CM송도 함께 흘러나오며 최근 유행하는 레트로 콘셉트의 정수를 느낄 수 있게 했다.

롯데웰푸드는 되살난 껌 시장의 활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젊은 세대와 껌 소비 접점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색 풍선껌 불기 대회도 점점 늘리기 확대를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다. 껌 씹기가 생소한 젊은 소비자들에게 '풍선껌 불기'라는 껌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전달하고자 8년만에 재개했다.

지난 2012년 첫 선을 보였던 '풍선껌 크게 불기 챔피언십'은 풍선껌 불기를 비롯해 껌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를 펼치는 서바이벌 형태의 대회다. 대회는 2015년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8년만에 대회를 재개해 풍선껌 브랜드 '왓따'로 풍선껌 불기 실력을 겨뤘다. 수많은 예선 지원자 중 총 100명의 참가자가 본선에 진출했으며, 우승자는 1000만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아시안컵 8강 대진 확정... '우승 후보' 한국·일본·이란·호주 생존
▲'호주전 쉽지 않겠네'... 클린스만호 승률 47.3% /사진 뉴시스

▲'후원사 뒷돈' 김종국 KIA 감독, 광주 서구 홍보대사 해촉
▲손흥민 없는 토트넘, 브렌트포드에 3-2 역전승



▲'불법촬영 혐의' 항의조 프랑스 몽펠리에 이적설
▲피츠버그 2루수 후보 5명에 배지환 포함... "출루율 높여야" /사진 뉴시스